

Korean News ·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 한인뉴스

2014 4

VOL. 214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







# Samsung GALAXY Note 3 + Gear

## DESIGN YOUR LIFE



*Life is a journey of creation.  
Make your mark.*

Available in two colors:



### Samsung GALAXY Note 3 + Gear

- Featuring the latest technology of Android 4.3 (Jelly Bean)
- Superior performance with 1.9 GHz Quadcore + 1.3 GHz Quadcore
- Crystal clear display with 5.7" HD Super AMOLED
- Multitask easily with new S Pen and Multi Window features
- Exclusive design with premium back cover

Customer service & contact center:

Toll Free 0800-112-8888, Telp (021) 5699-7777 (hunting)



SamsungMobileIndonesia



@Samsung\_ID

www.samsung.com/Id



완벽한 휴식, 비즈니스와 품격이 공존하는 하늘 위 나만의 공간-  
180도 완전 평면 침대형 좌석으로 내 집같은 편안함은 물론, 40여편이 넘는 영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음악CD를 제공하는 최첨단 개인형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으로  
또 다른 여행의 즐거움을 드립니다. 대한항공과 함께 최상의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구간	편명	출발	도착	요일
자카르타 - 인천	KE628	2205	0705 <sup>+</sup>	매일
	KE626	0750	1655	월,목,일
인천 - 자카르타	KE627	1520	2010	매일
	KE625	1925	0035 <sup>+</sup>	수,토,일

\* 대한항공은 덴파사르에서 인천까지 매일 운항합니다.



## 스케일이 다른 편안함을 경험하세요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a Korean Air office closest to you  
Jakarta : 62-21-521-2180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PT. BOSUNG INDONESIA**

ISO 9001 : 2008 / ISO14001 : 2004

**Corrugated Sheet  
Corrugated Carton Box  
Shopping Bag  
Inner Box**



골판지 생산에서 카본박스, 인쇄, 재단, 코팅까지 포장재 생산 전공정 설비를 통한 제품생산으로 최고 품질과 신속 납품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포장재 전문 제조회사 보성 인도네시아  
고객 만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품 안내**

- 종이 골판지 생산
- 카본박스
- 포장용 박스
- 종이 쇼핑백

Jl. Raya Rajeg, Desa Sindangsari, Kecamatan Pasar Kemis Tangerang 15560 Banten - Indonesia  
E-Mail : [shopping@bosung.co.id](mailto:shopping@bosung.co.id) [sales@bosung.co.id](mailto:sales@bosung.co.id) Tel. : (021) 5935 1001 (Hunting)  
Fax. : (021) 5935 0022 (Shopping Bag) - (021) 5935 0066 (Inner Box) - (021) 5935 0033 (Carton Box)



**PT. TAEWON INDONESIA**

ISO 9001: 2000 / ISO 14001 : 2004

- CORRUGATED
- CARTON BOX
- INNER BOX
- OFFSET PRINTING
- PULP MOLD



Jl. Raya Industri Selatan 1, Blok LL-6 Kws. Industri Jababeka II Cikarang Bekasi 17550  
E-mail : [sales@taewon.co.id](mailto:sales@taewon.co.id) Tel. : (021) 8948 - 1234 Fax No : (021) 8984 - 1133/1134



# SAVE THE MONEY!

## USE LED! Now LG Lighting!



### High efficiency and energy cost savings

Replace 36W conventional fluorescent lamp and improve energy efficiency of 51%



### Wide coverage angle of the light distribution

To minimize the heat sink area coverage angle of 180 degrees wide. Because of this uniform distribution is similar to conventional fluorescent lamp available.



### A cost saving lighting electricity costs

A long life of 40,000 hours can be long-lasting and economical maintenance costs are low.



### Low carbon emissions of green lighting

There is no mercury in the human body, reducing annual CO<sub>2</sub> emissions of green lighting.

**LG LED fluorescent tube for long life and superior economics to provide a uniform light with high efficiency products.**



LG LED Lighting  
공인판매법인  
PT.DAEHWA Indonesia

Contact person : 김세형(KIM SEI HYOUNG)  
Mobile Phone : 08111 747 11  
E-mail : shkims805@daum.net/kimsk@ptdaehwa.com

## 한인뉴스후원사로

###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한인뉴스발행인 신 기 업 배상

차 례..... 6

이모저모 한인사회..... 8

- 한인사 편찬위원회 출범회의
- 한국 형사 정책연구원 한인회 방문
- 인도네시아정부, 감사패 수상
- 천암함 폭침4주기 추모 및 안보결의대회
- 인도네시아 KEB, HANA 통합은행 출범식
- 인도네시아 관세정책 설명회
- KOICA, 자바 북부해안 공간 정보 시스템
- KOICA, 섬유시험연구소
- 인우회
- REDD+ 공공사업
- 제2차 한-인도네시아 공동위원회



경남 진해  
사진 : 김관수  
대구예술대학교 사진영상과 겸임교수  
경남 사진학술연구원 원장  
경남 국제사진페스티벌 운영위원장  
한국 사진학회 이사  
IPA KOREA 커미셔너

디자이너 : Diki Satria Nugraha @dqdoodle

기사를 다룰 때나 취재를 하러 나갈 때  
연장이 가득한 짐을 들고 노동을 하는구나...  
새삼 깨닫게 됩니다.

기억을 아낀소심 하므로  
기억보다는 기록이 정확하기에  
데바이스는 이미 연장의 개념을 넘어  
신체의 일부가 되어 갑니다.

자신을 신뢰하고 진화하는 건  
여전히 제겐 숙제입니다.

haninnewsinni@gmail.com

0818711246

편집장 홍석영

광해관리공단	숨바 탐방기 <김현미>.....40
ZEN한국	
KOICA,인도네시아 중부자바 섬유산업단지조성	행복에세이 <서미숙>.....44
한류 HARMONY	
재인도네시아 대한검도회 창립식	Jalan-Jalan Jakarta/민속촌 따만미니
바탐한인회 소식	<사공경>.....47
JIKS 소식	
오랑 띠옹호아입니다	인도네시아 약용식물
JIS 소식	(너트메그) <백진협>.....52
	신성철 칼럼.....54
3월의 경제 브리핑.....28	문화탐방후기 <김금사>.....56
기업 탐방(JAVA PALACE HOTEL)	부동산법 <이승민>.....58
<편집부>.....32	드라마에서 배우는 BAHASA
풍경과 사람<엄종한>.....35	<허영순>.....62
공통적인 것에서 다름 찾기 <김경일>.....36	화 도 소 .....66
내 마음의 뜰<시:정윤희/그림:이태복>.....39	생활정보

발행처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발행인 : 신기엽 / 편집인 : 조규철 / 논설위원 : 김문환  
 편집장 : 홍석영 / 편집위원 : 김재민, 최양기, 엄종한, 황윤홍 / 취재기자 : 전민규  
 전 화 : (021) 521-2515, 527-2054 / 팩 스 : (021) 526-8444  
 주 소 :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 이메일 : haninnewsinni@gmail.com

\*\*\* 웹사이트(<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가칭)한인사 편찬위원회(안)〉

☐아래 내역은 상황(결원, 신규참여, 업무성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 발행인

\*한인회장 신기엽

2. 자문위원단

\*원로자문위원 승은호, 김재유, 배상경, 이현상, 김영만  
 \*역대 사무국장 조용준, 송재선

3. 편찬위원장

\*한인회자문위원 김문환

4. 편집진

\*편집장 이승기(전 JIKS교사)  
 \*편집위원 박정자(문인협회), 김성월(문인협회), 김길녀(문인협회), 서미숙(문인협회), 이율리(문인협회)  
 \*출판관련 코디 김소진(한국문화원)  
 \*편집보조 Diki(한인뉴스)

5. 집필진& 담당분야

\*김문환(한인회 자문위원)  
 -일제강점기 및 잔류자(1920년~1970년대)  
 -기업진출 전반기(1960~1980년대)  
 \*이승민(변호사)  
 -기업진출 중반기(1990년~2000년)  
 -업종별(법조계)  
 \*신성철(테일리 인도네시아 발행인)  
 -기업진출 후반기(2000년~2014년)  
 \*추천인  
 -업종별(봉제협의회, 신발협의회)  
 \*이태복(자총련 수석부회장)  
 -단체별(자유총연맹)  
 \*이중현(완구협회)  
 -업종별(완구협의회)  
 \*조연숙(테일리 인도네시아)  
 -지역한의회 + 지역한인사회 형성

\*채인숙(시나리오 작가)  
 -여성계/단체  
 \*이상기(전 JIKS교사)  
 -초등, 중등교육 (JIKS, JIS외)  
 \*신영덕(UI대학 교수)  
 -고등교육(UI)  
 \*양승윤(전 가자마다대학 교환교수)  
 -고등교육(UGM, UNAS)  
 \*사공경(한,인니문화연구원장)  
 -문화교류(한,인니문화연구원, 문예총)  
 \*정무웅  
 -개신교(한인연합교회)  
 \*미정  
 -천주교, 불교

6. 감수(정부 자료제공)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총영사  
 \*김현기(전 한국문화원장)

7. 행정지원& 재정관리

\*김재민 국장/ 이경은 간사 한인회 사무국

8. 후원

\*재외동포재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자카르타) 한국문화원  
 \*한인기업 및 단체/개인

9. 협조처

1) 기관 및 단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아세안지역회의& 동남아남부협의회 \*한인상공회의소  
 \*대한체육회 인도네시아지회 \*옥타  
 \*지역한인회 \*코윈 \*ROTC동우회  
 \*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회  
 \*한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해병전우회

2) 업종별 단체/협의회  
 \*상사협의회 \*봉제협의회 \*신발협의회  
 \*에너지자원 협의회 \*모발협의회  
 \*건설협의회 \*금융협의회  
 \*언론협의회 \*요식업협의회





## '(가칭)한인사' 편찬위원회 출범회의

재 인도네시아 한인의 진출 역사와 경제, 문화, 종교 생활 등 다양한 주제의 자료를 한데 모은 '한인사(가칭)' (발행인 한인회장 신기엽, 편찬위원장 김문환)를 발간하기 위한 편찬위원회 출범식이 27일 한인회 문화회관에서 개최됐다.

한인사 편찬은 재인도네시아 한인회가 주관하여 1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10여 년 전 '한인뉴스' 지에 '한인사회의 뿌리를 찾아서' 라는 기고문이 연재된 이후, 한인사회 정체성과 역사성에 대해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르며 '한인사' 발간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2013년 5월 '한인개척사, 적도에 뿌리내린 한국인의 혼' 이 발간되고, 동년 9월 '외교 40년사' 가 대사관에 의해 발간됨으로 '한인사 발간사업' 은 필연적인 과업으로 인식되어 편찬위원회 출범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한국 대사관 김영선 대사는 "결과물을 산출하기 위한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 며 "한인사회와 대사관이 합심하여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보자" 고 말했다.

승은호 한인회 명예회장은 "옛날이야기가 역사이다" 라며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역사이니 여러분들의 과거를 편집인들에게 잘 전달해주기 바란다" 고 당부하였다.

신기엽 한인회 회장은 "인도네시아 한인 역사의 장에 획을 긋는 뜻 깊은 날이다" 며 "후대에 인도네시아에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한인회 관계자는 "다양한 주제의 이민 관련 자료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데 의미가 있고 한인 진출의 역사와 현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며 "역사서, 필독서, 지침서, 한가정 한권 운동으로 가치성 확립을 해나가겠다" 고 밝혔다.

오늘 이 행사는 기업의 진출로 시작된 한인사회의 형성과 한인회의 역할을 되새겨보고 새롭게 봉사와 발전을 다짐하는 날이다. 한인사회를 통합하고, 동포의식을 강조하여 한인사회의 정체성이 살아 숨 쉬는 이민문화를 주류사회 진입문호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인회 방문

3월11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준오박사가 한인회를 방문하여 교민사회의 전반적인 한인생활에 관한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준오 박사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지를 방문해 교민대상으로 범죄피해 실태를 조사한바 범죄피해율이 30%에 이른다며 재외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지 않는 공관은 필요치 않다는 현 정부의 방침아래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장박사는 “한 달 후 회사원, 학생 등 각계각층의 교민들에게 설문지등 심층면접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범죄현황을 파악하고 교민을 위한 범죄 예방 메뉴얼을 만들 것” 이라고 밝히며 “처벌 없는 범죄는 만연하기 마련이니, 여러 피해 사례를 체계적으로 잡아서 대응해 나갈 것이다” 고 말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고도산업사회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범죄의 양적 증가, 질적 변화 현상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이다.

1989년 3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에 의거 설립되었을 당시에는 법무부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었으나, 1999년 1월 국무총리실 산하 인문사회



연구회로 소관이 변경되어 정부 출연금 및 연구사업 수익 등으로 운영한다.

주요 업무는 범죄 동향, 그 원인분석과 대책연구, 형사관계 법령 및 형사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등이다. 또, 연구기관 등에 연구용역 위탁 및 정부 연구용역 수탁, 범죄 계도(啓導) 및 연수(研修) 등의 사업도 병행한다. 그 밖에 북한의 범죄와 형사관계법령 형사정책을 연구하며, 범죄 방지를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에도 노력하고 있다. 연구원은 법무부 요청에 따라 2011년부터 필리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지역 내 재외 국민의 범죄피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법무부는 연구원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범죄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 한국의 대표 3사, 인도네시아 정부 감사패 수상



한국의 롯데그룹 신동빈(왼쪽 두번째부터) 회장, 이희범 LG상사 부회장, 삼탄의 강태환 부회장이 지난 18일 주한인도네시아 대사관저에서 진행된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장 방한기념 만찬식’ 에서 한국-인도네시아의 경제협력과 우호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한 후 존 뿌라스띠오(왼쪽서 첫 번째) 주한인도네시아 대사와 한국을 방한한 마헨드라 시레가(오른쪽서 첫 번째)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들은 시상에 앞서 존 뿌라스띠오 주한 인니대사와 면담을 하고 현지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제공





## 천안함 폭침 4주기 추모 및 안보결의대회

3월 26일은 온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준 천안함 폭침 4주기를 맞는 날이다. 이날을 맞이하여 재 인도네시아 한인회(회장 신기엽), 민주평화통일 아세안지역회의(부의장 승은호), 민주평화통일 동남아 남부협의회(회장 박동희),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회장 현상범)는 희생된 장병들을 추모하고 안보를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열어 재외국민의 투철한 안보관과 의식이 요구되는 때임을 강조했다.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북한 잠수정의 공격으로 우리의 천안함이 폭침되어 장병 46명이 전사하였지만, 북한은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자작극을 운운하고 있다. 이에 한인단체는 4년 전 천안함 폭침 사건의 충격과 분노를 되새기며, 재인도네시아 5만 동포를 대신하여 천인공노할 북한의 도발에 대해 1)북한 정권에게 전사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 2)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일체

의 행위를 중단할 것. 3)북한의 3대 세습, 핵개발을 옹호하고 있는 우리 사회 내 중북 세력에게 반국가적 작태를 중단할 것. 4)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무력도발을 자행할 때에는 국제사회와 공조 하에 강력하게 응징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날 오후 4시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천안함 용사 4주기 추모식’에는 대사관, 한인회, 민주평화통일동남아 남부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 지부, 인도네시아대한체육회, 옥타,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 등 50여명이 참석하여 희생 장병의 넋을 경건하게 기렸다.

추모식은 국민의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과 천안함과 해군 관련 영상물, 천안함 폭침 4주기 결의문 채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 지부는 지난 3.1절 2부 행사에서 만들어졌던 손도장태극기를 한인회에 전달하였다.



## 「인도네시아 KEB HANA 통합은행 출범식」 개최

인도네시아 한국계 최대 은행 탄생!

인도네시아 선도 은행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힘찬 첫걸음!



하나금융그룹(회장 김정태 [www.hanafn.com](http://www.hanafn.com))은 1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재 메리어트호텔에서 그룹 임직원 및 인도네시아 주요기관장과 감독기관, 현지 고객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KEB HANA 통합은행 출범식」을 성황리에 가졌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KEB HANA 통합은행은 지난 2월 현지 감독당국의 합병 승인과 법무부 정관 승인을 거쳐 3월10일 출범식일정에 맞추어 전산통합까지 일사불란하게 완전한 통합을 위한 준비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로써 인도네시아 KEB HANA 통합은행은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기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본지점, 출장소를 합쳐 총 39개의 영업망을 확보함으로써 네트워크 경쟁력 확보는 물론, 자산과 영업력 강화를 통한 고객 최우선 가치 지향을 목표로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의 선도은행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힘찬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인도네시아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동서 교통의 요지에 위치한 동남아시아 지역협력기구(ASEAN)내 최대 규모의 경제규모로,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매년 6% 내외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인구 2억 5천만 명의 거대 내

수시장, 풍부한 천연자원, 젊고 생산성 높은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어 미래 성장 잠재력도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기록할 6개 신흥국의 하나로 꼽히기도 하면서 해외투자자들의 투자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출범식에서 하나은행 김종준 은행장은 “오늘 인도네시아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통합을 바탕으로 한 시너지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2025년까지 글로벌 이익비중을 40%까지 달성하겠다는 비전목표에 한걸음 더 다가 설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하나금융그룹은 저성장 저마진의 국내시장 환경을 극복하고 그룹 핵심 성장동력으로서 글로벌 사업의 획기적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도네시아 한인회 신기엽 회장은 “앞으로 통합은행으로서 인도네시아 금융산업의 든직한 일꾼으로서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통합은행 출범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인도네시아 KEB HANA 통합은행은 금년내 약 10개의 지점을 추가로 개점할 계획으로 지속적인 네트워크 확충을 통한 고객 점점 강화와 고개기반 확대는 물론 이에 걸맞는 전산 네트워크 구축과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KEB HANA 박용진



## 인도네시아 관세정책(심사제도) 설명회 개최

12일 KOTRA 상생협력센터 (GKBI 빌딩 12층)에서 대사관과 KOCHAM이 주관하고 인니관세청, 한국 관세청, KOTRA가 후원하여 ‘인도네시아 관세정책(심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보세지역(KB) 운영 한국 기업체, 일반 수출입 업체, 물류업체 등을 대상으로한 이번 설명회에는 인니 관세청 심사국장 Mr.Weko, 한국관세청 통관지원국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우리 기업은 전체 보세지역의 약 25% 점유, 최신 인니 관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사후심사(AUDIT) 강화정책 변화내역 인식 후 적정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수출입업체에 대해서도 무역관련 최신 통관정보 제공 및 당부사항 전달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번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인니 관세청 심사국의 인니 관세청의 사후 심사제도, KB 업체 IT Inventory 설치 및 활용, 보세지역 및 수출입업체 기록관리, 재고관리 우수 사례 소개 및 당부사항을 발표 하였고, 한국 관세청 통관지원국에서 한국 통관절차 설명 및 당부사항 등 인도네시아에서의 통관관련 예로 사항을 수렴하였다.

우리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세관당국과 협력 파트너쉽 구축 및 법규준수를 제고하고 기업들의 인도네시아에서의 정착과 합법적, 미래지향적 경영



활동을 지원과 보세지역 사업자 구분으로 Green 서비스 등급 획득 지원이 예상된다.

이날, 안창섭(PT. Petrasakti Madyatama 대표) 코참 부회장이 통관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한국관세청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안창섭 코참 부회장은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겠다” 며 소감을 밝혔다.

박영식 공사는 “현 정부는 해외로 진출되어 있는 기업에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지에 관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며 “보세 뿐 만이 아니라 해외 진출 한국기업에 코참, 코트라 등과 함께 도움을 주기 위해 최대한 노력 하겠다” 고 말했다.





우리나라 대외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김영목)은 3월 27일, 자카르타에 위치한 JW Marriot 호텔에서 “자바 북부해안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행사에는 우리측,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 김병관 사무소장과 국토지리정보원 고영창 시설사무관, (주)지오투정보기술 김정욱 대표가 참석했고, 인니측,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 Mr. Donny 수자원·관개부 국장, 국가지리정보원(BIG) Dr. Ade 지형도·지명부서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총 350만 달러를 투입하여 2년간 진행 되는 본 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해 세계 평균의 3배 이상으로 빠르게 상승하는 자바섬 북부 지역의 해수면 및 지반침하를 관리하기 위해,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한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해안관리시스템 개발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이에 KOICA는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 국가지리정보원(BIG)과 협력하여, 1:5000 수치지형도 제작 및 지리정보 시스템 개발과 함께 이를 위한 서버와 기자재 제공으로 인니의 관련 역량개발을 지원하며, 개발된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술전수와 인적자원 역량 증대를 위해 전문가 파견과 실무진 교육이 실시된다.

금번 착수보고회에서는 관련 부처와 기관을 대상으로 세부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서부자바지역인 북부 벵카시(Bekasi)에서 수방(Subang), 동부자바지역인 켄달(Kendal)에서 데막(Demak)까지 약 760평방 킬로미터를 아우르는 사업지에 대한 협의와 양국의 협력 및 노력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동 지역은 다양한 산업 인프라 및 인구가 밀집된 핵심 경제개발 요충지인 동시에 해안침식, 지반침하, 해수범람 등이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재난 발생시 물적·인적 피해가 매우 클 수 밖에 없는 지역이다. 인니가 기 구축하여 운영중인 시스템은 위와 같은 해수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세밀도가 낮아 효과적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KOICA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한국의 선진 공간정보기술과 원격탐사기술의 전수 및 활용으로, 인도네시아 해안지역에 빈번히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대응과 전략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글로벌 이슈에 대한 대외적 책임 이행으로 한-인니 양국의 국가이미지 향상 및 동 분야 경쟁력 제고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KOICA, 섬유의 도시 반둥에 섬유시험연구소 구축 지원

우리나라 대외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김영목)은 3월 24일, 인도네시아 반둥시에 위치한 섬유센터(Center for Textile, CFT)에서 “인도네시아 섬유품질 표준 및 품질보증검사 기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된 연구소 준공식을 인도네시아 산업부와 함께 개최하였다. 금번 준공식에는 우리측,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 김병관 소장, KOTRA 송유황 관장, FITI 시험연구원 노문옥 원장이 참석하였고, 인니측, Mr. Arryanto Sagala 산업정책·기업환경·품질평가원장, Mr. Suseno Utomo 반둥섬유센터장, Mr. Ade Sudrajat 인도네시아 섬유협회장, Mr. Ferry Yahya 인니산업부 국내산업개발 전문가 등 관계 기관과 현지 섬유기업, 한인 섬유 및 봉제 기업 등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동 사업은 KOICA가 2012년부터 3년간 150만 불을 투입하여 실시한 섬유분야 최초 지원 사업으로, 인니 산업부 산하의 ‘섬유센터(CFT)’와 협력하여, 인도네시아의 섬유수출산업 육성을 위해 국제표준규격에 부합하는 섬유품질보증 검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추진해 왔다. KOICA는 이를 위해, 노후한 설비로 활용도가 떨어졌던 시험실 개축에 자문을 제공하고, 관련 기자재를 지원하여 최적의 시험 환경을 조성하였다. 또한, 한국의 선진 섬유시험 기술을 전수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가 파견 및 국내초청 연수를 통해 인적자원 역량강화에도 힘을 쏟았다.

인도네시아에서 섬유·의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향후, 동 센터의 활성화가 기대되며, 인도네시아 섬유품질 향상을 통한 관련산업 확장과 대외수출력증대 등의 경제적 효과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다수의 재인니 한국 기업과 인니 진출을 원하는 기업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KOICA는 동 시험실이 타 섬유기관 및 기업들의 협력의 장으로써 기능하면서, 인적·물적 자원이 교류하는 허브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인우회

22일, 인우회(회장 이종윤)는 땅그랑 소재 상업학교(SMK Negeri I)에서 조그만 정성을 모아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이 담긴 장학금을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10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5백만 루피아의 장학금을 전달하였으며, 매년 4회에 걸쳐 2천만 루피아를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인 봉사와 적극적인 후원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는 인우회는 2008년부터 매년 운영 회비 기금으로 밀알학교 지원, 현지 고아원 지원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며 나눔 활동과 봉사자의 귀감이 되고 있다. 또한 사랑의 전화 구구구, 한글 응변대회, 한국어 교육 장학금 지원 등 소외된 계층을 찾아 현재까지 나눔 활동을 진행 중이며, 한글 교육 이수자 중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한국 기업에 취업 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고 있다.

이종윤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훌륭한 인재를 발굴하고 우리 주위의 불우이웃을 돕는데 다소나마 보탬이 되는 것이 흐뭇하다” 며 “인우회는 앞으로도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또한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서 학생

들의 미래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여러 기업체에서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재원들을 원한다” 라며 학업에 충실할 것을 당부하였다.

관계자는 지금은 학교에서 특별활동 시간에 한국어수업이 있지만, 한국어가 제 2외국어 수업으로 선정 될 수 있도록 대사관에 지원 요청할 계획과 한국 인천의 한 실업학교와 문화교류를 할 수 있도록 자매결연 맺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우회는 2007년 Tangerang 지역에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한글 교육을 필요로 하는 교민 아동, 결식 아동 돕기 및 복지비 지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오고 있는 단체로써 지역 사회를 위해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 있어 훈훈한 귀감이 되고 있다.





# REDD+ 공동사업 제2차 한-인도네시아 공동운영위원회

온실가스 줄이기 위한 '한-인도네시아협력' 추진



20일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탄소배출권을 확보해 기후변화대응공동사업을 펼칠 '제2차 한-인도네시아 공동운영위원회'를 열었다.

산림청은 2007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발리당사국총회 후 국제사회에선 기후변화에 대응할 온실가스감축수단으로 REDD+(개발도상국 온실가스 배출감축)가 주목받고 있음에 따라 외국 REDD+ 탄소배출권 확보 기반구축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인도네시아 REDD+공동사업'은 이런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REDD+시범사업 실시협의를록(ROD)을 2012년 1월 체결했다.

이후 사업타당성조사(2012년)를 거쳐 지난해 '제1차 한-인도네시아 REDD+ 공동운영위원회'에서 사업단이 만들어졌다.

산림청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탄소배출권을 확보해 기후변화대응 공동사업을 펼칠 '제2

차 한-인도네시아 공동운영위원회'를 가졌다. 왼쪽부터 이성환 소장, 노용석, 이스 무기오노 디렉터, 바수키 디렉터(수석대표), 뿌뜨라 연구개발청원장(DG), 남성현 산림청 국장, 이상익 주 인도네시아 임무관, 이미라 산림청 해외자원개발담당관(수석대표), 수경(KIFC공동센터장).

특히 공동사업대상지인 인도네시아 캄빠르지역 1만4000ha는 전형적인 이탄지(peat land)로 일반산림의 토양탄소저장량보다 4~5배 많은 탄소를 모을 수 있어 REDD+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제2차 REDD+공동운영위원회에선 REDD+공동사업의 세부추진계획을 확정, 인력양성 교류사업 방안 등이 활발히 논의됐다.

이미라 산림청 해외자원개발담당관은 "이번 공동운영위원회는 REDD+공동사업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활발한 논의로 두 나라간 이견을 좁히고 사업추진의 일관된 방향성을 꾀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 광해관리공단, 인도네시아 광물석탄총국 MOU

한-인도네시아 광해관리 및 석탄산업 발전 위한 협력기반 마련



▲ 권혁인 한국광해공단 이사장(오른쪽)과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부 수키아르 총국장이 ‘광업 분야 지속가능한 개발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악수하고 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2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에서 에너지광물부 광물석탄총국과 ‘광업분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국은 광해관리기술 및 석탄품질관리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보다 양질의 석탄 수급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술 교류를 위한 세미나·워크숍 등 인적자원 교류사업과 광해방지 프로젝트를 공동 발굴 추진키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석탄 생산국이지만, 석탄의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광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 전력생산을 위해 인도네시아 석탄이 수입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협약은 현지 광해 문제 해결과 석탄 품질관리 향상으로 국내에 양질의 석탄을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게 공단 측 설명이다.

## ZEN한국, 가루다항공에 도자기 독점 공급

2년간 2천만불 규모, ZEN한국 “기술력 인정받아”

도자기 제조사 ZEN한국은 인도네시아 국영항공사인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사와 기내 및 공항 라운지에서 사용하는 도자기 독점 공급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MOU에 따라 ZEN한국은 향후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의 전노선과 공항 라운지에까지 사용하는 도자기를 독점 공급하게 된다. 계약규모는 2년에 걸쳐 2000만달러로 ZEN한국의 단일 도자기 공급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다.

ZEN한국 관계자는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사는 오랫동안 일본제 도자기를 사용해 왔으나 ZEN한국 도자기의 품질을 인정해 도자기 공급사를 교체했다”며 “이번 계약을 통해 ZEN한국의 도자기 기술력이 다시 한번 평가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 생산거점을 두고 있는 ZEN한국은 자체 브랜드 뿐만 아니라 세계 명품 브랜드인 영국 맥스앤스펜서, 독일 빌레로이앤보흐, 스칸디나비



▲ ZEN한국 인도네시아 공장 내부

아 이탈라 등 세계 30여 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도자기 수출 전문업체다.

김성수 ZEN한국 회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향후 국내 시장에도 본격 진출해 수출과 내수 비중을 50대 50으로 맞춰 국내외서 모두 인정받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 KOICA, 인도네시아 중부자바 섬유산업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및 상세설계사업 최종보고회 개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김영목)은 3월 28일, 인니 산업부 라자왈리 홀에서 “인도네시아 중부자바 섬유산업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및 상세설계 사업”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Imam 산업개발부 차관보, Endang 전 자바 지역 산업개발국장, Seno 보요랄리 군수를 비롯한 인니 측 관계자 및 김병관 KOICA 사무소장, 금철수 한국토지주택공사 실장 등 우리 측 관계자 총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과물 발표 및 프로젝트 공식 인도 서명식 등이 진행되었다.

Imam 차관보는 축사를 통해 KOICA 측에 감사를 표하며 2014년부터 인니 정부의 제도 개선을 통해 향후 산업단지 조성 시 부지 인허가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며, 투자자들의 보다 안전한 현지 활동이 가능해졌음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산업부 차원에서 동 산업단지 건설이 순조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언급하는 한편, KOICA와 산업부 간의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유용한 정보 및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김병관 소장은 동 사업의 완수를 지원해 준 양국의 여러 사업 관계자들에게 사의를 표하고, 인도네시아의 발전을 위한 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인도네시아 정부가 금번 KOICA와의 기술협력사업을 계기로 효율적인 경

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얻기 바란다는 뜻을 전하며,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현실화 시킴으로써 미래를 위한 도약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언급하였다.

본 사업은 인니 섬유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1~2013년까지 총 440만불의 KOICA 무상원조자금을 투입, 중부자바 보요랄리 군 지역에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및 단지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인도네시아가 우리 측의 노하우 및 기술력을 바탕으로 투자 및 단지 조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니 정부는 이번 KOICA 사업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보요랄리 지역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자 확보 및 단지조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서명식 후 (좌측부터) 김병관 사무소장, Mr. Imam 산업개발부 차관보, Mr. Seno 보요랄리 군수



## 한류 Harmony

18일,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다목적홀에서 인도네시아 작가이자 교수인 Yusuf Affendi의 전시회가 개최됐다. 23일까지 6일간 열린 이번 전시회는 한국 방문을 통해 얻는 느낌과 영감들을 바탕으로 한 작품들이다.

Yusuf Affendi는 “여행하면서 보고, 느끼고 기록한 한국 문화와 전통은 오히려 예술가에게는 친근하고 낯설지가 않았다” 며 “예술 탐험을 통해 선의 놀림과 풍부한 색으로 가공되고 표현 되는 관조적인 상상력의 표현하였다” 고 작품을 설명하였다.

또한 그는 “2012년과 2013년 연간 프로그램인 한국 문화 연구 포럼의 회원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으며, 몇몇 전문가들과 만나 이루어진 심도 있는 토론과 대화는 색다른 경험이었고 한국의 환경과 문화예술 현장 방문 또한 인상 깊은 추억이 됐다” 고 말했다.

그간 대한민국은 인도네시아와 문화와 예술 등 여러 분야에 협력하면서 오랜 시간을 통해 외교관계를 구성해왔다. 상호 간 깊은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 이 영광적인 파트너십은 평화적이고, 아름다우며 평온한 문명 세계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두 나라의 인문적 관점을 열어주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인도네시아 예술가 눈에 비친 한국을 작품으로 표현함으로써 두 나라의 상호이해와 존경을 통한 양국의 문화 예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Yusuf Affendi 교수는 현재 반둥공과대학(ITB), Trisakti 대학교에서 강의 중이며, 영국, 미국 호주 등 여러 차례 전시회를 가졌다.



### 인도네시아 원로 예술인의 감성을 사로잡은 한국의 매력 그림으로 다시 태어나다

수상(Award)

Fellowship Award JD Rockefeller The 3rd, New York, USA, 1968

호주정부상, 공예센터, Darwin, 1981

동부자바 주지사상, 문화예술부문 1985

대통령상, 중소기업부문 (UPAKARTI) 1990

스타메달, 대통령상 2007

ITB 국가 현장 및 학술 훈장

(인도네시아 교육부) 2007



## 재인도네시아 대한 검도회 창립식

28일 (금), 자카르타 한인회관에서 재인도네시아 대한 검도회 창립식을 가졌다.

재인도네시아 대한 검도회와 재인도네시아 대한 체육회 검도협회(회장 강희중, 사범 김민조)주최로 열린 이번 창립식에는 사단법인 대한검도 이종립 회장, 김영선 대사, 승은호 한인회 명예회장, 신기엽 한인회 회장, 송창근 상공회의 회장, 양영연 대한 체육회 회장, 김우재 세계 무역인 협회장 등 대한검도 협회 회원들이 참석해 협회의 출발을 축하했다. 강희중 회장은 “학창시절 검도를 시작하여 틈틈이 수업을 받은 후 자신감을 가지고 인도네시아에 보급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한인들에게 검도를 보급하여 강한 정신을 가질 수 있게 재능 기부를 하려고 한다” 고 말하며 협회창립에 도움을 준 이종립 대한검도 회장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



신기엽 한인회 회장은 축사를 통하여 “검도로 심신을 연마하여 한인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해주시기를 바란다” 고 부탁하였다.

김우재 세계무역인 협회 회장은 협회에 발전기금을 전달하며 “충.효.예는 정의라고 생각한다. 검도회가 영원히 나가 후세의 기강과 정의로움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양영연 대한 체육회 회장은 “체육인을 대표해서 인도네시아 잘 정착하기를 기도한다” 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종립 대한 검도 회장은 강희중 회장에게 진검수여 및 재인도네시아 대한검도회기를 전달하였다.

현재 성인검도는 매주 토요일 5시부터 7시까지 열린 교회(한국국제학교 근처)체육관에서 수업하고 있으며, 학생 검도는 3월 중순부터 한국국제학교에서 주 1회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수련자는 대한 검도회에서 실시하는 승단심사에 참여 할 수 있고 인도네시아 대표선수 선발전을 거쳐 10월 제주도 전국 체육대회에 참가가 가능하다.



책 소개

# 인도네시아 그 섬에서 멈추다

**너**고 재미있게 생긴 섬들이 엉켜있는 걸 바라  
**래**보기만 해도  
내 마음은 이미 섬에서 섬으로 건너가고 있다.

국적을 초월하여 인간의 숨결을 느낄 수 있어 좋은 나라, 불만하고 아름다운 섬들이 바둑알처럼 놓여 있어 ‘한번쯤은 꼭 여행가야 할 나라, 인도네시아!’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을 보면 내가 빨리 가지 않으면 작은 섬이 바다로 떠내려 가버릴 것만 같아 마음이 바빠지고, 이미 다녀 온 곳에 꽃힌 압정을 만지면 나를 부르던 그곳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음식 냄새가 난다. 촬영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찡그리며 울고 웃으며 가무잡잡한 얼굴과 맞대고 빚어냈던 일들이 어제 다녀온 것처럼 생생하다. 이번 두 번째 책을 통해 전국을 다니던 나의 열정과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희로애락으로 버물려 놓은 현장으로 나의 두 번째 책이 안내해 줄 것이다.

인도네시아 그 섬에서 멈추다(가도 가도 끝이 없고 봐도 봐도 볼 게 많은) 이 책은 김성월작가와 함께 인도네시아를 여행하면서 촬영했던 배우 조여정씨와 방송인 로버트 할리가 특별히 추천하는 책이다.

책 내용은 총 11PART(섬)로 나뉘져 있으며 인도네시아 서부에서 중부 동부까지 약 150여 곳의 여행지와 볼거리 그리고 특별한 먹을거리도 소개해 놓았다.



저자 김성월은 2012년 10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지!> 책을 출간한 적 있으며 2014년 3월에 <인도네시아 그 섬에서 멈추다> 책을 또 출간했다.

YES24 인도네시아지점  
(021 2902 1714)에서  
책 구입이 가능함

저자 / **김성월**

경북 의성 출생으로 1998년 인도네시아로 이주한 후 2002년 수필로 등단해 한국문인협회 회원이고 한·인니문화연구원 자문이사이며 현재 오지 여행작가로 활동 중이다.





재 인도네시아 케프리주(바탐) 한인회  
KOREAN ASSOCIATION IN KEPRI (BATAM) INDONE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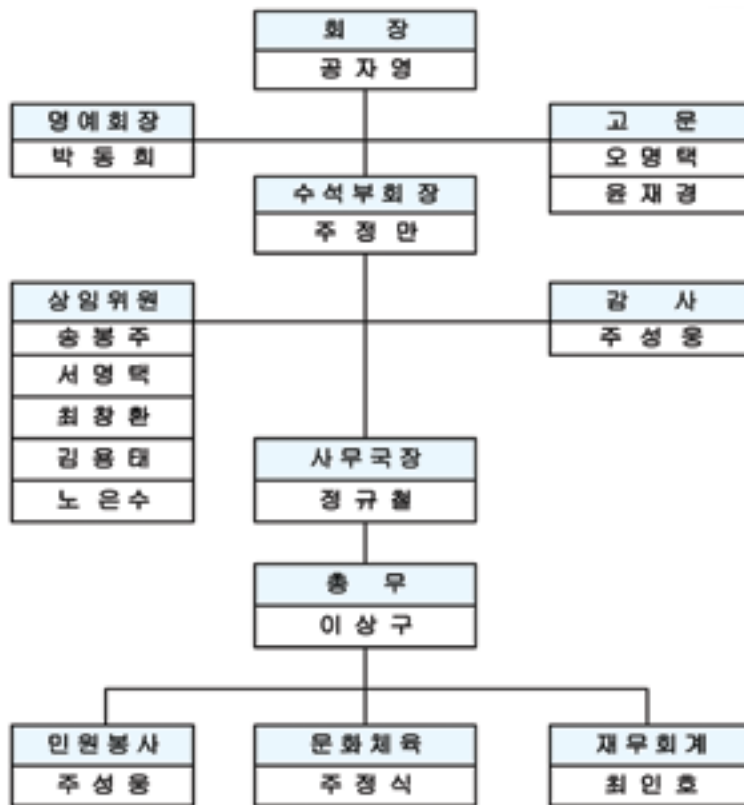
제 5대 바탐한인회임원진 기념사진



제 4대 오명택회장이 제5대 공자영 회장에게 축하꽃다발 증정



## 제5대 바탐한인회 기구조직표



선출일자 : 2014. 03. 08.

재 인도네시아 바탐한인회장  
공자영 (T:0811 691 826 /0778-462-500)

재 인도네시아 케프리주(바탐) 한인회  
KOREAN ASSOCIATION IN KEPRI (BATAM) INDONESIA

# JKKS

## The 3rd Global Leadership Camp In English



자 카르타한국국제학교(교장 김승익, 이하 JKKS)는 봄방학을 이용하여 2월 17일부터 20일까지 3박 4일 동안 Tanjung Lesung Sailing Club에서 제 3회 글로벌 리더십 캠프를 진행하였다. 2012 글로벌 리더십 캠프를 시작으로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한 본 캠프는 새로운 테마인 “Oceans”를 주제로 하여 해양생태계 및 자연 환경에 대해 배우고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본교 4, 5학년 중 신청 학생 48명, 3명의 원어민 교사를 포함한 지도교사 6명, 캠프 진행을 도와줄 고등학생 10, 11학생 6명은 2월 17일 본교를 출발하여 Tanjung Lesung에 도착한 후, Trekking, Raft building, Sailing, Snorkeling,

Cycling, Boat trip to island, Fishing, Quadrathlon(Running, Cycling, Swimming, Sailing을 이어서 하는 4종 경기)을 비롯한 다양한 해양 활동을 체험하였으며, 원어민 교사의 지도로 ‘Sea animals’, ‘Ocean geography’, ‘Tanjung Lesung’을 주제로 학습하였다.

이번 캠프를 통해 학생들은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깨닫고 상호 협력하는 능력을 길렀다. 특별히 영어로 진행된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리더로서 반드시 가져야할 소통 수단인 영어능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글로벌 리더십 캠프를 계기로 참가 학생 모두에게 앞으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 JIKS 초등 개학식 및 신입생 입학식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김승익)에서 2014학년도 개학식과 신입생 입학식이 열렸다.

3월 3일 본교 나래홀에서 국민의례로 시작된 개학식은 신규교사(김상기 외 5명) 소개, 각반 담임 소개 및 교과 교사 소개가 있었으며, 새로운 학년이 되어 열심히 공부할 것을 격려하는 교장선생님 말씀으로 마무리되었다.

3월 4일 오전 10시 20분 본교 나래홀에서 진행된 입학식은 61명의 신입생들이 6학년 선배들과 손을 잡고 입장하는 것으로 시작되어 신입생에 대한 입학허가, 1학년 담임교사, 부장 및 교과 담당교사들의 소개, JIKS 합창단의 축하 등이 이어졌다. 입학식이 끝난 후 반별 촬영 및 각 반에서 담임교사들의 학교생활 안내가 있었다.

JIKS의 김승익 교장은 신입생들에게 ‘부모님과 선생님들에게 감사하기,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기, 어른들께 높임말 쓰기’를 부탁하였고, 학부모들에게는 학교를 믿고 보내주심에 감사하며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 '오랑찌나' 아니죠 '오랑 띠옹호아' 입니다 <Orang Cina> <Orang Tionghoa>

### 47년만에 대통령령으로 결정 중국 공식 명칭도 China에서 Tiongkok 으로 개정

유도요노 대통령이 수하르토 대통령 정권 당시 개정된 중국에 대한 명칭 'Cina(찌나)'를 'Tionghoa(띠옹호아)'로 재개정하는 대통령령 2014년 제 12호에 최종 서명했다.

지난 14일 유도요노 대통령이 명칭 변경안에 공식 서명함에 따라 향후 정부기관 등은 'Cina'라는 명칭의 사용이 금지되며, Tionghoa(띠옹호아)나 Tiongkok(띠옹꼭)을 사용해야만 한다.

화교에 대한 호칭뿐 아니라 중화 인민공화국을 나타내는 인도네시아어 표기 'Republik Rakyat Cina'도 'Republik Rakyat Tiongkok'으로 변경된다. 이번 대통령령 제정은 개인, 단체, 지역 커뮤니티 등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모든 화교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한다는 의의가 있다.

중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의미가 담겨있다는 이유로 오래 전부터 재인니 중국사회는 명칭 변경을 요구해왔으며, 현 정부가 드디어 이를 인정, 공식적으로 법령을 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47년만에 호칭을 회복하게 된 재인니 중국사회에서는 환영의 물결이 이어졌다.

인도네시아 독립 이후, 화교는 차별대우를 받으며 고난의 역사를 겪어왔다. 1945년 헌법에서는 이들에 대한 명칭을 'Tionghoa'로 규정했지만 67년 수하르토 정권에서는 소수파를 다수파에 동

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중국문화 금지령'을 내려 문화동화 정책을 실시했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내에서 중국의 문화, 사상, 의식을 따르는 것이 금지됐다. 화교들은 중국식 이름에서 인도네시아식 이름으로 개명을 강요당했고 Cina라는 명칭과 함께 억압과 차별을 받기 시작했다. 98년에 일어난 폭동에서는 화교를 대상으로 한 살인, 방화가 이어져 그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바 있다.

그러나 수하르토 체제가 붕괴된 98년, 하비비 대통령은 중국어 사용을 허용하는 등 차별적 규정을 일부 폐지했다. 이어 2000년 압둘라만 와히드 대통령은 중국문화 금지령을 전면 폐지했으며, 메가와티 정권에서는 춘절 (Imlek)을 국가 공식휴일로 지정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유도요노 대통령 정권에 들어서는 2006년 주민등록증(KTP) 종교란에 유교의 기입도 인정하는 등 계속적으로 화교들에 대한 차별을 완화해왔다. 이에 따라 화교의 정부요직 진출도 늘어났다. 가장 최근의 정계 진출 사례로 자카르타 부지사로 당선된 바수끼 짜하야가 있다.

한편, 민주당 당수인 유도요노 대통령이 화교에 대한 이번 조치를 총선 직전에 발표한 것은 화교들의 지지율 상승을 노렸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화교 커뮤니티 '인도네시아 화교의 목소리' 대표인 에디·쿠스마씨는 "최근에는 화교에 대한 차별대우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민대통합이 이뤄지고 있음을 느낀다"고 전했다.



J I S



# Cilandak Games

(학생기자 김혜경)



2월 27일 JIS (자카르타 국제학교) 에서 해마다 개최하는 전통적인 Cilandak Games 가 열렸다. Cilandak Games 는 JIS 고등학생들을 위한 체육 대회와 같은 날이자 자기와 같은 학년 학생들 및 다른 학년 선후배와도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날이다. Cilandak Games 는 매일 바쁘고 반복적인 학교생활에 지친 학생들 사이에 교류가 없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처음 만들어졌다. 각각 학년별로 팀을 나누어 서로 다양한 게임을 통해 경쟁하여 점수를 획득하고 마지막에 우승을 가린다.

Cilandak Games 는 주중에 학교를 다니는 날 하루를 정해 열린다. 아침 7:30 부터 11:35 까지 단축 수업을 하고, 점심 시간 이후 12:30 부터 학교가 끝날 시간인 14:45 까지 많은 게임으로 형성되었다. 개막식에서 Cilandak games 의 시작을 알리는 릴레이 경기와 각 학년의 환호 소리로 점수를 매겼다. 학생회 대표 Bonny Lee 는 “Cilandak Games 를 기다리며 다같이 카운트다운을 하였을때 우리모두 하나가 된 것같아서 뿌듯하였다” 라고 전했다.

그 다음 순서로는 여러가지 게임들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선택한 활동에 참여하였다. 게임은 피구, 배구, 축구, Quidditch, Capture the flag, 두뇌게임, 배너 페인팅과 어메이징 레이스 로 진행되었다. 다양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모든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 할 수 있었다.

Cilandak Games 는 매년 첫학기때 열렸지만 올

해는 바쁜 일정으로 인해 두번째 학기에 열렸다. 원래 1월 말에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호우로 인해 날짜를 변경 해야 했다. 2월 27일 에도 비가 와서 행사 초반에는 실내에서 실시되었지만, 마지막에 주요 활동들이 진행될 때에는 다행히 비가 그쳐 실외에서 할 수 있었다.

이 날의 하이라이트는 전통적으로 진행되는 줄다리기였다. 모든 학생들이 각자 선택한 활동을 한 다음 한자리로 모여서 서로 경쟁하며 줄다리를 했다. 결국 모든 게임들이 끝난 후에 점수를 매긴 결과, 12학년이 일등을 하였고 그 다음은 11학년, 10학년, 그리고 9학년 으로 순위가 정해졌다.

Cilandak Games 는 학기가 처음 시작할때 새로 전학년 학생들, 고등학교로 막 올라온 9학년 후배들, 곧 졸업 할 고3 선배들 등, 전 고등학교 식구가 서로 알아 갈 수 있는 재미있고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이러한 고교 단합대회를 통해 새로운 우정도 쌓을 수 있고 앞으로의 학교 생활 또한 한층 더 밝아지는 모습을 상상해볼 수 있겠다.





## 2014년 3월 월간경제브리핑

### 인니 보험회사, 아세안으로 확장 어려울 전망

보험침투율·보험밀도 ↓ 인적자원 부족 및 고객서비스 수준 낮아  
AEC 출범 이전에 경쟁력 향상시켜야

인도네시아 보험회사들이 2015년 AEC(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에 앞서 경쟁력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아세안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고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 측이 전했다. 현지언론 자카르타포스트 26일자에 따르면, KADIN의 로스 로스라니 관계자는 25일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한 세미나에서 “AEC 출범으로 인해 전국 보험업계에 도전의 기회를 가져오게 됐다”며 “인도네시아 보험회사가 역내 보험전문가로 활동하기 위해 타 아세안국가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하지만 현재 경쟁력으로는 타국으로 확장을 실행하기엔 여전히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청(OJK) 두모리 빠르테데 부청장은 “보험회사들이 많은 문제에 직면해있다. 회사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 약 70%는 청구관리에 문제가 있는 보험고객들로부터 발생한다”며 “일부 보험회사들은 고객서비스가 질적으로 여전히 낮으며 보험계리인, 보험업자와 기타 보조역할을 하는 근로자의 수가 적다”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요소로 인해 인도네시아 보험침투율(insurance penetration)과 보험밀도(insurance density)가 매우 낮다. 이에 고객들은 타국의 보험상품을 선호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국가로 싱가포르를 들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인도네시아의 보험업계가 자산과 보험료 측면에서 점차 나은 성장을 기대할 수 있으나, 보험침투율은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등 타국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보험료 비율로 계산되는 보험침투율은 소득대비 보험료 비중이며, 보험밀도는 1인당 생명보험 납입보험료를 말한다.

재무부의 금융서비스 및 자본시장정책부서의 이사 라마파르와파는 “AEC 출범시, 인도네시아 보험업계는 외국보험사의 유입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국내 보험업계 직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명확한 정책이 필요하며, 전문인력을 더욱 보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보험위원회(DAI)의 헨드리스만 라힘 회장은 “인적자원이 아직 부족하다. 아세안 통합의 목표는 야심차지만 인도네시아는 지역 경제통합을 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AEC 통합이 2020년에 구현된다면, 인도네시아는 초기계획대로 잘 준비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인구는 아세안 전체인구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침투율은 낮고 보험업자의 능력은 부족하다. 그는 인도네시아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보험회사의 주 타겟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지보험회사인 프루덴셜 인도네시아(PT. Prudential Indonesia)의 윌리엄 꾸안 회장은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경제통합에 직면할 경우 국내 보험업계가 타국으로 확장되기가 쉽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들이 보험상품을 제공하기 이전에 디자인, 주요 대상 등을 포함해 고려해야 할 것이 많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 고급차 사치세, 4월부터 125%로 인상 3000cc자동차 국내판매 중 1% 밖에 안돼 ...실효성 의문

인도네시아 정부는 4월부터 고급차에 대한 사치세를 현행 75%에서 125%로 올릴 예정이다. 사치세 인상은 지난 8월 제안됐으며 사치품의 수입을 억제해 경상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방침으로 풀이된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21일, 소셜네트워크(SNS) 트위터 계정을 통해, “다음달부터 배기량이 3000cc이상의 휘발유 엔진과, 2500cc이상의 디젤 엔진을 탑재한 세단 및 스테이션 왜건(Station Wagon/화물 겸용 자동차)의 사치세를 12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현지언론 비즈니스인도네시아 22일자에 따르면 카팁 바스리 재무장관은 “세금인상은 현재 자동차에만 해당한다. 그러나 가방 등 타 고급제품에 대해서는 추후 개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법령인 2009년 제 42호에는 정부가 사치세를 최소 10%~최대 200%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까지 자동차에 관한 사치세는 작년 5월 발효된 2013년 제 41호 법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10~75% 선이었다. 해당규정에 따르면 고급자동차 군에는 사치세 75%가 부과되고 있으며, 휘발유 엔진을 탑재한 차량 중 운전 기사를 포함한 10명 이하의 인원을 수용하는 자동차가 첫 번째 세금 인상대상이다. 이 분류에 해당하는 차종은 배기량 3000cc이상의 엔진을 장착한 세단 또는 스테이션 왜건이다.

두 번째로는 탑승인원 10명 이하를 수용하는 차량 중 디젤엔진을 장착한 자동차이다. 이는 배기량 2500cc이상의 디젤엔진을 장착한 세단과 스테이션 왜건이 해당된다.

또한 이번 개정에서는 차종을 세단에만 한정하지 않고 500cc이상의 이륜차에 관해서도 사치세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캠핑 및 숙박에 이용하는 카라반 차종과 같은 트레일러나 세미 트레일러도 이에 해당된다.

한편, 사치세 인상에 대해 자동차업계에서는 “자동차 수입을 억제해 무역적자를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사치세를 높이는 것은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Potong dari sini ke hal2 티아라 짜하야 오토모티프 사의 르비노 에드와르들리 CEO는 “인도네시아 국내 시장에서 배기량이 3000cc 이상되는 자동차는 1%이하이다. 오히려 3000cc 이하의 차에 사치세가 매겨진다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세금이 인상되면 소비자들은 이탈리아제 프리미엄 자동차 마세라티 구입을 중단하겠지만 대신에 기장 이노바를 20대 구입할 것이다. 세금을 올려야 하는 것은 MPV, 시티카, SUV처럼 널리 보급된 차종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동차 판매가가 약 30%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며 “20~30% 정도의 인상은 2억루피아대에 해당하는 자동차 구매자들에게 크게 거부감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40억~10억루피아대 자동차 구매자들에게는 20~30%인상이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의 타타자동차 계열사로 영국의 고급차 재규어 랜드로버를 판매하는 그랜드 오토 디나미카의 달윈 이사는 “사치세의 인상으로 판매가격이 최대 40%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들은 3000cc미만의 라인업을 확충하여, 판매 하락을 최소화하겠다는 생각이다.

## 한국-인도네시아 자원분야 협력 강화키로

최근 몇 주간 전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으로 인도네시아의 ‘자원 민족주의 대두’ 라는 용어가 수 차례 등장함에 따라, 인도네시아부터 해외 투자금 이탈과 동남아시아로의 직접투자가 위축될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이 드리워졌다.

하지만 이러한 세계의 경고가 인도네시아와 한국간의 무역거래 및 투자유치에 지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인도네시아 마헨드라 시레가르 투자조정청장(BKPM)의 3일간의 공식방한을 그 증거로 들 수 있다.

지난 18일 존 뿌라스띠오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관저에서 열린 저녁 만찬에서 마헨드라 투자조정청장은 “인도네시아의 사회·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경제성장을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는 확실한 기회가 될 것이다” 고 말했다.

마헨드라 투자조정청장은 이어 “현재 세계 도처의 국가들은 상품 수출에만 편중해서는 안되며 국내 수요도 집중 개발해야 한다. 만약 천연자원 수출에만 의존하게 될 경우 국내산업을 육성할 수 없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존 뿌라스띠오 대사는 지난 2012년 9월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로 임명돼 인도네시아와 한국간의 경제유대 강화에 주력해왔다.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은 이달 말에 실시될 전자비자 서비스 실행 마무리 단계 중에 있다. 이 온라인 서비스는 비자 수수료 지불을 위한 계좌이체 등 모든 유형의 비자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 비자 신청자들은 비자출력시 여권을 소지하고 대사관을 방문해야만 했다. 대사관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E-영사서비스’ 라고 칭하며 신규 발급되는 e-비자는 출장 및 여행을 목적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더욱 간편하게 이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마헨드라 투자조정청과 존 뿌라스띠오 대사는 이날 한국의 대표기업 3社인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LG상사 이희범 회장, 삼탄의 강태완 부회장에게 한국-인도네시아 경제협력과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각각 감사패를 수여했다. 마헨드라 투자조정청장은 또한 대한상공회의소 박영만소장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도 회의를 가졌다.

한국의 對 인도네시아 투자는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다. 지난해 인도네시아로의 한국의 직접투자(FDI)는 연간 22억달러로 전년 대비 13%의 성장을 기록하며 한국은 일본, 싱가포르, 미국 다음으로 인도네시아의 네 번째 투자국으로 자리매김했다.

마헨드라 투자조정청장은 지난해 10월 유도요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이후 일본, 한국을 포함해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전세계를 방문했다. 인도네시아 투자촉진위원회는 2013년 인도네시아의 한국투자가 23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프로젝트로는 인도네시아 전기·가스·수도에 5억1,600만달러, 화학·약학에 2억1,600만달러, 강철·기계 및 전자제품에 2억1백만달러, 직물에 1억9,600만달러, 주택·부동산 및 사무실 건물에 1억4,700만달러 등이 있다.

삼탄의 강태완 부회장은 “자사는 최근 몽골에 탄광투자를 시작했지만 몇 가지 문제점에 직면했다. 그에 반해 인도네시아는 몽골보다 해외투자에 훨씬 개방적이어서 몽골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를 철수하고 인도네시아로의 투자를 확장하기로 결정했다” 고 말했다.

삼탄은 수십 년간 인도네시아에 막대한 투자를 해온 한국의 에너지 전문업체이자 대표 유연탄업체로 전기발전소, LPG 생산 및 팜오일 농장에 이르기까지 사업을 확대해왔다.

마헨드라 투자조정청장은 “이번 한국의 방문을 통해 인도네시아 경제 및 투자개발을 더욱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다가오는 대선에 대한 정확한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다. 외국인 입장에선 신문을 통해서만 인도네시아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도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해외 투자국으로, 2013년 총 FDI의 16.5%인 약 47억달러를 투자한 바 있다. 두 번째로 싱가포르가 16.3%로 그 뒤를 잇고 있다.



## 블리츠메가플렉스 4월 기업공개 계획

4,600억루피아 자금 조달 예정

인도네시아 최대 영화체인점인 블리츠 메가플렉스의 운영기업 빠떼 그라하 라야르 뿌리마(PT. Graha Layar Prima)가 영화체인점을 확장시키기 위해 내달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이다. GLP 기업은 IPO를 통해 4,620억루피아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다.

현지언론 자카르타글로브 18일자에 따르면, GLP는 지분 46.11%에 해당하 1억4천만주를 발행하며 주당 가격은 2,800~3,300루피야로 설정했다.

현지 증권사인 인도 프리미어 세큐리티(Indo Premier Securities)의 모레오노또 회장은 17일 인터뷰에서 “인도 프리미어는 금번 4월 2~4일에 있을 IPO의 보험업자로서 활동할 것이다” 고 전했다.

GLP 기업은 오는 4월 11일자로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IDX)에 상장되는 첫 번째 영화체인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GLP의 브라따나따 뿌르다나 대표는 “우리는 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내년 안에 7개의 영화관을 런칭할 계획이다” 며 “영화관 확장을 위해 IPO의 모든 절차방식을 따를 것이다. 현재 반둥, 까라왕, 찌르본, 족자카르타, 수라바야 지역에 블리츠 메가플렉스 영화관을 입점하는 중이다” 고 밝혔다.

기업은 현재 11점의 블리츠메가플렉스 영화관을 운영 중이다. 브라따나따 대표는 “주요도시의 영화 관객들의 수요가 매우 높다는 연구가 나왔다. 또한 북부 수마트라 메단과 북부 술라웨시 마나도 지역에서 영화관을 런칭할 기회를 모색하는 중이다” 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영화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수요가 매우 크다. 지난 1992년도에는 전국 2,300점의 영화관이 있었으나 현재 700개만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따나따 대표는 “인도네시아 140개 주요 도시 중 영화관은 48군데 뿐이다. 이를 추산하면 인도네시아 국민 1백만명당 2.7개의 영화 스크린을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국민 1만명당 21개의 스크린을 이용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치다” 고 말했다.

지난 2004년에 설립된 블리츠메가플렉스는 인도네시아 영화체인점인 시네플렉스21와 현지고객 유치에 앞다퉈 경쟁을 이루고 있다

GLP의 빠르디아나 울리아 수나르디 디렉터는 “지난해 영화관을 찾은 고객은 총 530만명으로 전년보다 40% 증가했다. GLP는 금년도에도 같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싶어한다” 고 말했다. GLP는 IPO 이후 2억주를 신주발행할 예정이다.

한편 GLP의 채권자는 한국의 시네마 기업인 CJ CGV와 홍콩 사모펀드 IKT 홀딩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일간에서는 CJ CGV의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상장이익도 노려볼 수도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들은 “GLP가 IDX에 상장된 이후 CJ CGV의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CGV가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을 것” 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CJ측의 한 관계자는 “1,500만달러 규모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건 맞지만 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지는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 며 “상장 이후 상황을 봐가며 결정할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설사 주식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최대주주로 올라서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고 언급했다.



Jakarta Biz Daily  
Pusat Office Tower 10th Fl 10010,  
J. Jend. Sudirman, Jakarta Pusat, 10130  
Jakarta Section 10000



# JAVA PALACE HOTEL



대표 박재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인(박재한 사장) 최초로 호텔을 건설하여 운영 중인 자바 팔레스 호텔 (Java Palace Hotel)이 지난해 11월 11일 오픈하여 지금은 자카르타 외곽 도시인 Cikarang JABABEKA에 명품으로 우뚝 서 있다..

지난 3월12일부로 창업 17주년을 맞이한 PT. Busana Prima Global(PT.BPG)를 운영하며 제조업을 기반으로 지금의 자바 팔레스 호텔을 일구어 낸 박재한 사장은 “급변하는 제조업계 노동자들의 의식 구조 변화 및 지속적인 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 제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어 가는 이 시점에 뭔가 또 다른 아이템을 선정할 필요성을 느껴서 호텔 사업을 결심하게 되었다” 라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지금의 자바 팔레스 호텔에 이어 점차적으로 호텔과 연계하여, Shopping Mall 및 아파트 건설까지 계획하고 추가 Project를 진행 중” 이라고 밝혔다.

“성실” 과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라는 말을 가장 좋아한다는 박재한 사장은 “어떠한 일이라도 성실하게 마음 먹은대로 꾸준히 밀고 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며, 한인 교민들의 젊은 세대들도 성실을 바탕으로 꾸준히 노력한다면 원하고 바라는 바를 분명히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라고 당부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산업 도시인 이 지역 비즈니스를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출장자들에게 내 집처럼 안락하고 내 사무실처럼 일할 수 있는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Java Palace Hotel은 지상 12층, 지하 1층, 연면적 15,000㎡ 규모의 4성급 비즈니스호텔로 151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고, 편의시설로 동, 서양의 메뉴를 갖춘 아이르랑가 레스토랑(Airlangga International Restaurant), Live Band와 함께 음주를 즐길 수 있는 아르주나 펍(Arjuna Pub), 3개의 연회장과 5개의 크고 작은 미팅 룸이 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호텔에 오면 사우나와 마사지룸에서 피로를 풀고,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골프연습장 등에서 운동을 하며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다. 또한 호텔 부속으로 한식당 ‘고주몽’을 운영하여 이 지역 한국인 뿐만 아니라 호텔을 찾는 다양한 나라의 고객들에게 한식을 알리고 있다.

호텔의 객실은 Superior (28㎡) Deluxe (42㎡) Suite (56㎡) Presidential Suit(195㎡)의 다양한 크기로, 인근의 다른 호텔들과 비교해 크기가 넓은 편이고, 최첨단 전자 제품 및 최고의 품격 있는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으며 특히 각 층별로 인테리어가 다양하여 장기 투숙객의 경우 한 방에서 계속 지내다 보면 지루할 수 있는 만큼 분위기 전환을 위해 투숙 기간 중 인테리어가 다른 방으로 교체가 가능 할 수 있는 배려도 제공 한다.





이 호텔이 위치한 짜카랑 지역은 한국 유수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체와 일본계 제조업체 등 30여개국 700여개의 다국적 기업과 800여개의 인도네시아 기업이 밀집한 서부자바주의 대표적 공단지역이며 상주 인구 120여만 명의 자카르타 위성도시이다.

이 호텔의 국가별 고객의 비율은 한국인(28%), 일본인(27%), 미국·유럽인(25%), 인도네시아 포함 기타 국가(20%) 순이다.

특히 이 호텔은 다른 호텔과 비교해 다양한 크기의 연회장, 미팅 룸 및 상설 전시 공간 등을 갖추고 있어 기업 또는 단체 행사, 결혼식 등 연회와 이벤트를 규모나 성격에 맞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비즈니스 고객이 많이 찾는 만큼 신속한 업무 처리를 도울 High speed Wi-Fi를 제공하고 있어 보다 편안한 업무 환경을 제공한다.

Java Palace Hotel은 Cikarang 지역의 교민들을 위한 문화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1월7일부터 2개월간 열린 “서예 동호회 회원전”을 시작으로 하여 지난 3월15일부터 4월 15일 까지 “한국 현대 서예 초대전”을 한국 문화원에 이어서 전시하고 있다.

Java Palace Hotel의 박재한 사장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전시를 함으로써 이 호텔이 지역 한인사회의 문화생활의 공간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Jl. Niaga Utara Kav 1~2 Jababeka II  
Cikarang Jawa Barat 17530 Indonesia  
Tel) +62-21-2928-1111  
Fax) +62-21-2928-7300  
Mobile) +62-815-1902-0320  
www.palacejav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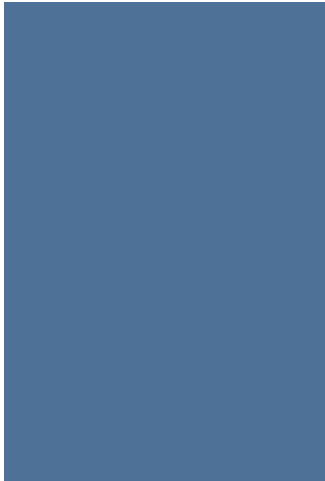




발리 <클루와뜨 사원>

## 호기심

발리의 여름,  
지나가는 여행자를 멈추게하는 소녀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  
성스러운 어른들의 기도와는 또다른 고요함을 줍니다



## 공통적인 것에서 다름 찾기

### 세상의 많은 다름은 결국 공통점에 기초한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갈등의 원인은 정말 다양하다. 그 중 대표적인 것 하나가 바로 ‘우린 서로 너무 다르다’ 라는 하소연이다. 한 마디로 이질감이다. 그런데 심리학 연구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 “세상의 많은 다름은 결국 공통점에 기초한다” 는 것이다. 무슨 말장난이냐고 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는 엄연한 사실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다르다’ 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중 한 종류의 다름은 결국 같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sup>1)</sup> 그리고 이 두 차이 중 어느 것을 더 중점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인간관계에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치유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아래의 예를 보자.

A와 B 이렇게 두 대의 자동차가 있다. 연비, 출력, 최고속도에서

\* 자동차 A는 16.3km/L, 190마력, 그리고 시속 200km이다. 반면,

\* 자동차 B는 15.3km/L, 180마력, 그리고 시속 180km이다.

그런데 자동차 B에는 내비게이션과 선루프가 있고 자동차 A에는 없다.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물어본다. “A와 B 중 어느 자동차가 더 좋아 보이는가?” 물론 자동차에 대한 전문적 관점이나 철

학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판단 기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점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니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자동차 A가 좋다고 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답했을까? 아마도 연비, 출력, 최고속도에서 자동차 B보다 더 앞서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측면은 이른바 ‘엔진’ 이라는 것을 두 자동차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상대비교’ 에서 나온 평가이다. 즉, 엔진이라는 공통점(같음)에 기초한 차이점들이다. 그래서 평가에 대한 이유를 대기도 구체적이고 쉽다. 한 마디로 눈에 잘 띄고 말하기도 수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동차 B가 더 좋다고 한 사람은? 필시 자동차 A에는 아예 없는 내비게이션과 선루프를 더 눈여겨 봤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내비게이션과 선루프는 상대비교가 되지 않는 측면이다. 비교가 어려우니 왜 더 좋은지를 설명하기도 쉽지 않다. 질적인 차이이기 때문이다. 관련된 연구 대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A가 더 좋다고 한다. B가 더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다시 말해서, 공통점에 근거를 둔 비교를 통해 느끼는 차이와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차이 중 전자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 ‘다름’의 역설

서로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두 대상 사이에서 차이점을 더 많이 그리고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이유는 둘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점에 기초한 상대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캐스트에서 예전에 발행된 ‘이유기반선택’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소개된 적이 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PC-노트북’ 과 ‘PC-고양이’ 이렇게 두 쌍이 있다. 둘 중에 서로 어떤 쌍이 더 유사한가를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코웃음을 치며 “당연히 PC와 노트북이 서로 더 유사하지요!” 라고 대답한다. 이 대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지는 가정은 ‘PC-노트북’ 간에서보다 ‘PC-고양이’ 사이에서 더 차이점이 많을 것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약간의 시간을 주고 둘 간의 차이점을 최대한 많이 써보라고 하면 사람들은 PC와 노트북 사이에서 훨씬 더 많은 차이점을 써내려 간다. 하지만 PC와 고양이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람들은 약간 당황해 하면서 쉽게 써 내려가지 못한다. 딱히 비교할 만한 것들이 없기 때문이다.

이 재미있는 역설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서로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두 대상 사이에서 차이점을 더 많이 그리고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이유는 둘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점에 기초한 상대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더 가깝고 유사한 관계에 있는 대상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차이점을 더 강하게 느끼고 따라서 갈등을 겪는 일이 많다.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차이를 우리나라와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와의 사이에서보다 더 쉽고 많이 느낄 수 있는 것도 한 예일 것이다. 한 마디로, 공통점이 많이 존재할수록 그 공통점에 기초한 차이가 쉽게 느껴지며 따라서 이질감이나 갈등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점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생각거리를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든다. 바로, ‘우리가 다

르기 때문에 갈등하는 것인지 아니면 갈등하기 때문에 그 (공통점에 기초한) 다른 점들이 더 잘 보이는 것인지’ 이다. 전자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중요한 점은 후자의 경우도 참으로 많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점을 우리 스스로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PC와 고양이 사이에서 차이점이 오히려 더 잘 생각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이유로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그야말로 질적인 차이는 오히려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한다. 그런데, 한 번 생각해 볼만한 재미있는 점은 어떤 인간관계에서든 각자가 맡고 있는 역할은 이러한 질적인 차이에 기인한 것이 많다는 것이다. 직장에서의 관계, 부부 관계 혹은 부모 자식 관계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사람들 각자가 상대방을 위해 하고 있는 많은 역할들은 성별, 연령 혹은 능력 등에 있어서 질적인 차이에 기인하여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점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그 사람이 나와서의 관계에서 맡고 있는 중요한 역할들이 나에게 잘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감사의 마음이나 제대로 된 평가도 하기 어렵다.



## 너무 다르다는 것은 결국 너무 닮았다는 것



실제로 ‘우린 서로 너무 달라요’ 라고 하소연 하시는 부부, 동료, 혹은 가족들을 만나면 실제로 비슷한 점이 매우 많음을 발견하게 된다.

결론은 이렇다. 상대방을 미워하면서 보이는 이질감은 많은 경우 공통점에 기초한 비교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실제로 ‘우린 서로 너무 달라요’ 라고 하소연 하시는 부부, 동료, 혹은 가족들을 만나면 실제로 비슷한 점이 매우 많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많은 현인(賢人)들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다. 그 마음가짐으로부터 만들어 낼 수 있는 변화가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

떻게 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더 쉽게 가질 수 있을까? 바로, 상대방은 지니고 있는데 내가 전혀 혹은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즉 질적인 차이를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지니는 의미나 역할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이것이 미움보다는 인정과 감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역으로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면 그제야 어림פות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역할이며 질적인 차이이기도 하다. 이래저래 비교라는 것보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다.

글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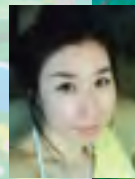
# 꽃 밭

시 : 정 윤 희 / 그림 : 이 태 복

해바라기 꽃이 피었습니다  
 아바아처럼 커다랗고 듬직한 우리를 지켜와주는 소중한 꽃. 해바라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엄마의 품처럼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내 조국 같은 꽃. 무궁화  
 개나리꽃이 피었습니다.  
 울망줄망 귀엽고 사랑스러워 보고 또 보는 아이 같은 꽃. 개나리  
 채송화 꽃이 피었습니다  
 흔하디 흔하게 길에 널려있고 쉽게 찾을 수 있으나 그 아름다움만은 뒤지지 않는  
 꼭 필요한 친구 같은 꽃이 피었습니다  
 내 뜰엔 해바라기, 무궁화, 개나리, 채송화  
 많은 꽃들이 피었습니다.  
 내 맘도 더불어 활짝 피었습니다.  
 물을 주고 최고로 좋은 거름도 주고 언제까지나  
 나와 함께 할 정원입니다.  
 사랑합니다.

### 정 윤 희 약력

- 1994 교내 미술 전시회 최우수상 및 입선 수상
- 1995 제2회 전국 중.고등학교 산업디자인전 입선 수상
- 1999 국민일보, 스포츠서울 신문광고 7점 게재 (광고제작)
- 2010년 제1회 인터넷공모전 '인도네시아 이야기' 장려상 (수필)
- 2011년 제2회 인터넷공모전 '인도네시아 이야기' 우수상 (시)
- 2011-현 한.인니 문화연구원 정보팀장
- 인도네시아 전통악기 앙골롱 연주자





<한\*인니문화연구원 247회-250회 문화탐방기>



## 미지의 섬, 백단향의 섬, 영혼의 섬 숨바!

김현미 (한국문인협회인도네시아지부회원)

나는 이미 숨바의 독특한 장례방식에 대해 들었던 적이 있던터라 망설임없이 스케줄만 체크하고 참가 신청했다. 21일 새벽 4시 우리는 20명의 낯선이들과의 여행에 대한 설렘과 긴장을 지닌 채 자카르타 공항에서 만났다. ‘오지여행’이라는 단어가 주는 생경스런 호기심으로 불편함에 대한각오는 없었다. 떠나는 그 순간은 언제나 호기심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하늘을 나는 기분이다.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말이다. 나는 젊었던 어느날을 또렷이 기억한다. 벚꽃으로 온 세상이 하얗게 물들던 그날 핸들을 꺾어 꽃길을 따라 그 눈부심 속으로 증발해버리고 싶었던 날이 있었다. 지긋한 책임감. 나는 숙제를 하고서야 비로소 밥을 먹고 놀 수 있는 어린아이였다. 어린 날 예민하게 돌아난 감성의 촉수가 칼이 되어 스스로의 가슴을 후벼팠고 새로운 것을 보면 그것이 전부인 양 우주가 되어 나를 무겁게 누르던 날들이 있었다. 확실히 그 예민함은 사그라들었지만 나는 이제 핸들을 꺾을 수 있게 되었고, 나를 더 이상 후벼파지 않아도 공감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것 같다. 이렇게 떠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가 말이다. 우리는 떠난다. 동부 누사땡가라 (NTT) 소순다열도 숨바섬으로.....

첫째날:서숨바 따브로칸공항도착.숨바 전통가옥과 고인돌마을 방문.

고고학은 목적지없이 영원히 계속되는 탐구여행이다. 고인돌은 사람사는 곳에 조상을 모시는 것으로 조상과 자손이 한 곳에서 살아가는 묘지의 한방식이다. 몽골에서 사람들이 조상 무덤 곁에 가지 않으려는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서숨바의 따브로칸공항에 도착했을 때 김작가님의 분실된 짐과 초라한 공항은 이곳이 오지라는 것을 실감하게 해주었다. 고인돌 마을의 집들은 키가 높은 전통가옥으로 집 내부지붕 아래 높은 곳에 시신을 안치한다고 했다. 5년마다 지붕의 짚을 갈아야하는 수고로움에도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의 고인돌은 선사시대의 것들이라 그 변천사를 알기 어렵지만, 숨바의 고인돌은 아주 오랜 것과 최근에 세워진 듯한 시멘트로 만든 고인돌까지 다양하게 있어 그 형태와 문양의 변화를 아주 잘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문양이 얼마나 한국에서 발견되는 것과 흡사한지, 나 역시 여러 엔틱들을 접하며 문양을 접하다보면, 옛사람들의 방식은 가끔씩 서로 물리적인 교류가 없어도 통하는 방식과 선호되는 문양이 비슷하다는데 놀란다. 닭이나 말조각 등 토속 신앙에서 선호 되는 문양들은 아주 한국적이기도 했다. 토속신앙이 여전히 숨바사회의 모습을 광범위하게 지배하고 있지만, 기독교인이 많음도 놀라

왔다. 고인돌 위에 세워진 십자가는 내가 국사책에서 봤던 모습이 아니었다. 서슴바는 동슴바에 비해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먹고 자는 것이 불편할 수 있다는 설명에 숙소는 각오했으나, 잘 만했다. 챙겨간 침대시트가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을 잠시했다. 아무렇게나 텅굴며 자유롭게 잘 수 있는 '나' 이기를 원하지만 나 역시 문명에 길들여진 존재이니 말이다.

둘째날: 빠솔라축제 관람, 서슴바에서 초원지대를 거쳐 동슴바로 이동.



빠솔라는 '창을던지다' 라는 뜻이며 말을 타고 달리면서 상대방에게 나무 막대기를 던지는 전통적인 전쟁놀이이다. 서슴바 사람들은 해마다 모내기 전 2~3월중순까지 마을대 마을로 주민들이 모여서 빠솔라를 즐기며, 이를 위해 일년동안 준비한다고 한다.

이튿날 아침. 그 조용한 동네에서 슝바사람들은 물론 외부에서 온 사람들, 문화탐방팀, 외국인사진작가 등,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금새 군중을 만들었다. 라또(제사장)가 전통복장으로 말을 타고 한 바퀴 돌면서 시작을 알리면 빠솔라가 시작된다. 좋은 자리를 잡느라 내려쬐는 햇빛 사이를 오가다가 운 좋게 중국인 사진작가의 앞자리를 차지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다. 출전하는 말들이 흥분해서 바로 앞까지 치고 들어오는가 하면 예리하게 다듬어진 대나무 창이 인과들 사이로 날라들어오기도 했다. 상대방팀에게 이기자 흥분인지 흥인지 모를 묘한 기운이 돌면서 전쟁놀이는 긴장감을 더해갔다. 우리 문화탐방팀들은 그날 안전상의 이유로 모두 빨간 티셔츠를 입고 움직였는데,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형형색색의 이깃으로 치장한 전

통복장, 머리장식도 특별한 구경이었다. 지나가는 남자의 허리춤에 걸친 이깃이 너무 예뻐서 하마터면 벗어달라고 할 뻔했다. 오후에는 서슴바에서 동슴바로 초원지대를 지나 5시간 이상 이동하는 긴 경로였다. 난 몇가지 이유 때문에 버킷리스트처럼 꼭 가고 싶은 나라들이 있다. 몽골의 초원을 꼭 보고 싶었다. 초원에서 지는 노을이 지구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한 어느 작가의 말이 공감되어서이다. 어느 노을이든 아름답지 않은 노을이 있겠느냐만은, 그날 노을에 대한 나의 감흥이 각별한 탓이리라. 초원에서 게르(몽골식천막)를 치고, 노

을을 보고, 별을 보고, 노래를 하면서, 몽골식의 수작업으로 일일이 색을 넣은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머리를 땅아내리고 춤을 추고 싶었다. 덜컥거리는 차, 긴 시간의 이동으로 피로가 몰려 올 즈음, 자연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의 선물을 주었다. 언덕에서 바라보이는

광활한 초원. 노을지기 직전의 농도 짙은 황금빛 햇살을 받으며, 우리는 그 언덕에서 서로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우며 아름다움을 만끽했다. 서로의 얼굴에서 빛나는 보석을 보았다. 이어진 여정에서 살짝 잠이 들었던나는 수군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다. 어머, 어머 별 좀봐. 우주 쇼하는 것같아. 어쩔 이런 별은 본적이 없어..... 세수를 막하고 나온 아이의 맑은 얼굴처럼 별들이 그렇게 총총이 있었다. 참으로 오랜만의 만남이었다. 나는 동료의 무릎에 누워서, 별빛은 그렇게 창밖에서 서로의 눈을 오래도록 맞추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밤바다 근처의 야외식탁에서 저녁을 먹었고, 시를 함께 읊미했으며 아주 많이 행복해하였다.



셋째날:숨바의장례식,숨바섬의해변

숨바의 장례문화는 독특하다. 부모의 장례식에 시집간 딸들은 가족을 가져와야 하고 아들의 처가에서는 이갓을 가져와야 한다. 장례식에 재물이 많이 들어가는 셈이다. 그리하여 장례식 치를 돈을 모을 때까지 시신을 집의 높은 곳에 모셔두고 함께 생활한다고 한다. 숨바사람들은 장례식에 마당 입구로부터 여자들이 먼저 한 줄로 서서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방으로 가서 빠빵강(장례식 때 말을 타고 고인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자로 노예신분임)들과 인사를 나누고, 남자들이 이를 따른다.



숨바의 장례식은 축제 같았다. 우리가 방문한 날은 왕족의 장례식이 있었던 날이었다. 많은사람이 줄지어 오고 있었고 원형의 장소를 마련하여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었다. 상주들은 오는 손님 하나 하나 악수로 인사를 청했고 우리 문화탐방 팀들을 보자 한국에서 왔다고 특별히 소개도하였다. 시중드는 아이가 정중히 인사하며 시리삐낭을 대접하여 예의를 갖추었다.(시리삐낭: 숨바사람에게 있어 중요한 예의와 인사를 위한 기호식품으로 씹으면 입안이 붉게 입술까지 변진다. 맛은 쓰면서도 신맛이 난다) 머리에 붉은 천으로 장식을 한 소들이 줄지어 입장했고, 남자들은 괴이한 소리를 지르며 고인을 추모하는 것 같았다. 마치 영화 아바타에서 원주민들의 제사의식처럼 격양된 몸짓과 목소리로 그들만의 의식을 치르는 것 같아 보였다. 나는 장례가 축제인 것이 좋다. 아니 다시 말하면 장례가 슬픔인 것이 싫다. 그들의 어떤 의식과 관념들이 자신이 사는 공간에 시신을 모셔두고 또한 그 의식을 치를때 축제처럼 하는 것인지, 한편으론 이해됨과 동시에 죽었을 때 가장 돈이 많이 드는 부족이라는 점은 내가 그들과 분명 다른 별에 산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자연주의자 스콧니어링은 그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자연으로 들어가 건강히살기에 힘쓰다가 100세가 되던 해 죽음이 앞에 왔음을 느끼고 스스로 음식을 끊어 죽음에 이르렀다. 자연스런 죽음, 죽는 순간의 깨어있음. 담담하고 초연하게 죽음을 수용하는 자세..... 그리고 삶의 다른 일처럼 죽음을 환영해야 함을 말했다고 한다.

어느 책에선가 “난 죽어서 내가 좋아하는 대머리 독수리의 먹이가 될꺼야...” 라는 글을 보고 어린 나는 꽤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우리문화에서는 짐승의 먹이가 되는 것이 상대방을 저주하는 말이 아니던가 말이다. 하지만 자연의 순리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된다.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일은 누군가의 먹이가 되는 일이다. 박테리아든 작은 벌레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간에 말이다. 그 작가는 유독 자신이 좋아하는 새의 먹이가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한때 일본에서는 고인의 뼈로 목걸이나 반지로 만들어 추억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그 업종이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다. 그 뉴스를 보며 나는 할머니가 그리워졌다. 할머니는 내가 할머니 뼈를 지닌 것을 좋아하실 것같은데 하며..... 이렇듯 죽음에 대한 여러생각에 다다르자, 12년된 관을 생활하는 집안에 모셔두고 생활하고 있는 흔적들. 밥그릇 국그릇 등 일상도구들이 편안히 눈에 들어왔다. 이렇게 이들에게 죽음은 살아있는 자와도 소통을 나누는 일상의 일로 여겨지는 것인지 모른다. 우리는 축제인 장례식을 빠져나와 해변으로 향했다. 숨바의 해변은 아직 미개발지로 천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해안 끝까지 보아도 아무 것도 없었다. 집짓는 일이 직업인 나는 부지런히 머릿속에 스케치를 해나갔다. 잠깐사이 그 해변에 몇 채의 집을 지었는지 모르겠다. 행복한 상상이다. 맹그로브나무가 화석처럼 하얀 숲을 이루고 있었던 해변. 현지인의 말로는 80년대의 발리라고 하는데 아직 눈을 감으면 온통 하얀 모래와 옥빛으로 햇살에 반짝이던 모습이 강렬히 남아있다. 해변에서 석양을 보고 싶었으나 이동거리 때문에 움직여야만했다. 아쉬운 맘이 가득했는데 웬걸. 이동 중에 자연은 우리를 위해 따로 준비해 놓은 것이 있었다. 하늘에서 큰 새가 내려오고 있었다. 큰 울림이 가슴 속에서 번져갔다.



영혼의섬

-이인상

과거에서 현재  
현재 건너 내세에 묻힐 육신  
떠나갈 영혼들을 달랠 사연 짚어놓고  
더 많이 더욱 깊게 담아 살아 숨쉬며  
인도양 붉은 노을에 신비형상으로  
얼혼 넋을 봉황새로 그려낸다.

숨바꼭질 하는 영혼의 섬 '숨바'  
왕족과 평민들의 고인돌  
닭 말 다양한 그림 암각화 지식묘  
큰 돌맹이들이 돌멘(Dolmen)자리를  
조상과 자손들이 마당에 들려놓고  
윗통 벗고 온몸에 걸칠 "이깃" 을 짠다.  
혼백들이 모여사는  
미지섬 "숨바" (Sumba).

이 저녁무렵 함께했던 우리들의 시간을 추억하며  
이인상교수님께서 써 주신 시이다.  
넷째날: 이깃구경, 발리에서 버스여행 후 자카르  
타도착.

니가 실리삐낭으로 입술을 빨갛게 물들인 채 일일이  
채취한 목화를 다듬는 모습이 참 예뻐 보였다.  
꼭 우리 할머니를 보는 것 같았다. 얼굴생김, 젓가  
슴 모양까지 울할머니를 꼭 닮은 숨바족 할머니.  
한가닥한가닥 새겨 넣었을 문양이 예사로 보이지  
않았다. 예전에 바두이족을 방문했던 적이 있다.  
충동구매를 거의 하지 않는 탓에, 사지않고 온 이  
깃이 내내 맴돌았다. 숨바에서 산 이깃 3점은 이미  
나의 집한켠이 되어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자  
카르타로 오는 여정은 비행시간의 계속된 연기로  
한밤중이 되어서야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집에  
와서 큼지막한 통에 담긴 세안크림을 듬뿍 덜며,  
오랜 잠옷의 익숙한 보드라운을 느끼며, 일상으로  
의 복귀를 실감하였다.

이번 숨바탐방은 이동시간과 식사를 세밀히 짜  
기 힘들었으므로 박선이 수석문화탐방팀장님, 김  
성월작가님은 무척이나 힘들었을 것이다. 원래예  
상대로 되지않은 일정은 따라가는 사람보다 이끄  
는 사람이 더 힘든 법이다. 그 힘든 부분을 강희  
중회장님과 이인상교수님이 넉넉함으로 채워주  
셨다. 한\*인니문화원과 대가없이 애쓰신 모든 분

께 그 특별한 감사를 전한다. 불  
편한 자리를 서로 바꿔가며 차  
량 이동을 했는데, 나는 이를 스  
탠딩 파티처럼 즐겼다. 여러사  
람과 소통하며, 처음의 낯설음  
이 없어지고 각자의 개성을 지  
닌 친밀한 우리가 되었다. 편하  
게 보려면 TV여행프로를 보면  
된다. 산을 왜 힘들게 올라가는  
가 말이다. 그 위에 무엇이 있다  
고? 우리는 덜컹거리는 차안, 햇  
빛 내리쬐는 광장과 해변을 걸  
으며 여행을 나선다.

여행이 끝났을 때 우리는 놀라운  
기억의 필터링을 경험한다. 피곤했던 기억은 없고  
그 찬란했던 짧은 순간, 자신과 교감했던 진한 찰  
나의 순간만이 남아, 결국은 한 방울의 향유가 되  
어 우리의 삶을 향기롭게 한다는 것을 말이다.

이깃(숨바인들이 짜는 천으로 이깃문양에는 그들  
의 역사와 생활상이 그대로 표현 된 것으로 상당  
히 중요하다.)  
3일동안 이깃을 잠깐씩 구경했었다. 숨바족 할머





## 편안하고 아름다운 만남에 대하여...



서 미 숙 / 수필가, 시인  
gaeunsuh@hanmail.net

**우**리가 살아가는 행복의 조건 중에 그중 한 가지를 꼽으라면 주변에 언제나 편안하면서 아름다운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 만큼, 만남의 연속이고 원만한 대인관계는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영혼의 비타민과도 같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누구보다 편하게 어울리는 환상의 트리오가 있다. 그 구성원의 멤버는 다름 아닌 나보다 두어 살 위인 손아래 시누이고, 또 그녀의 친구들인 곱상한 외모의 두 여인이다. 이렇게 나를 포함해 우리 넷은 서로를 살뜰히 살피는 친자매들처럼 편하게 만나면서 잔잔한 기쁨을 느끼고 있다.

“어머, 얘! 어찌 되었든 시누이와 친구들인데 불편하지 않아?”

그도 그럴 것이 결혼초기에 시누이로 인한 스트레

스로 적잖이 가슴앓이를 해왔던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과정을 잘 알고 있는 나의 오랜 친구들은 그래도 시월드라고 일컫는 그녀들과의 만남을 걱정스럽게 묻기도 한다.

그런데 나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다. ‘NO! 나이 들어서 시월드는 무슨? 이제는 편하기만 하던데... 굳이 나를 새삼스럽게 어필할 필요도 없고 살아온 세월만큼 미움도 정도 한데 녹아내려 이제는 함께 어울리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만 남았다고 나는 이야기한다. 사실 시누이 친구들은 나와는 적절한 예의를 갖춰야 하는 어색한 사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그녀들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시누이가 내게 부르는 언니라는 호칭으로 언제나 정성스럽게 대해 준다. 참으로 인간적인 그녀들이다.

나는 친구들에게 우리의 만남에 대해서 은근히 자

랑하며 긍정론에 예찬론까지 늘어놓았다. 물론 그 배경에는 작년 봄이었던가, 시누이가 그녀의 남편과 친구 두 명, 그렇게 총 4명을 거느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로 무작정 놀러왔다.

물론 오빠가 살고 있는 곳이긴 해도 시누이 부부만도 아닌 친구들까지 대동하고 편한 마음으로 놀러오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시누이 또한 올케언니인 내가 편하다고 생각했기에 그런 결정을 했을 거라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서 고마운 마음이 느껴졌다. 우리 집에 시누이 일행이 머무는 동안 나는 불편한 표정은커녕 정성과 마음을 다했다.

서울에서 적당히 골프도 치며 모두가 여유 있는 생활을 즐기고 있는 그네들이다.

그렇지만 우리 집에서 모두 시끌벅적 한 가족처럼 머물면서 자카르타 시내를 물론 뽀짝, 반동을 돌려 골프도 치고 온천여행도 즐겼다. 오고가는 차안에서는 서로가 알고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그야말로 웃음꽃을 피웠다.

‘아, 이런 것이 바로 사람 사는 맛이로구나!’ 말로 표현은 못해도 모두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 매일 저녁에는 거실에서 함께 모여 그날의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TV 화면으로 보며 웃고 즐거워하면서 행복한 10여일을 보냈다. 그런 돈독했던 시간들이 아마도 시월드라는 선입견의 답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는지도 모른다. 이제는 한국에 오면 친구들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한다. 우리 넷은 좋은 곳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유명한 둘레길을 찾아다니며 적절한 운동도 하고 문화생활도 즐긴다.

오랜 해외생활로 외로움이라면 어느 정도 경지를 터득했기에 비록 시누이라 해도 떨어졌다 만난 자매처럼 그저 반가울 뿐이다. 아이들도 어느덧 성장해 제 앞가림을 하고 있는 이시기가 어찌면 여자들의 나이로서는 사람들과 만나고 어울리는 그야말로 인생에서 최대의 황금기가 아닌가 싶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오가면서 늘 목말라 했던 한국적인 정서에 맞는 문화생활도 마음껏 누리고 있으니 말이다.

이번에는 시누이 친구 중에 한명인 연속씨가 오페라 티켓을 준비했다. 세계 4대 오페라중의 하나인 푸치니의 대표작인 오페라 라보엠을 보러 갔다. 우리 넷은 그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는데 조용하고 차분한 오페라곡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즐거운 분위기에 음률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편안한 마음이 깃털처럼 가라앉았다. 오페라 곡은 음악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음악이다. 오페라는 유럽의 문화를 이해하고 듣는 것뿐이 아니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음악이다. 음악 속에 심취하는 정신은 영혼의 조화를 감지하는 마력이 있는 것 같다. 바쁜 현대를 살면서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고 클래식 음악을 음미하면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그런 고풍스러운 여유를 즐기는 시누이 친구가 존경스러웠다. 역시 사람은 사람 속에서 배워야 한다고 그녀만의 개성을 극찬하며 긍정으로 입을 모아준 시간이다.

드디어 우리는 오페라 ‘라보엠’을 감상하러 가톨릭 문화원에 도착했다.

파리 예술가를 꿈꾸는 젊은이들의 사랑과 아픔에 대한 이야기인 오페라 ‘라보엠’은 유럽의 어느 도시, 크리스마스 시즌에 가난한 젊은이들의 청춘과 사랑 이야기를 담았다. 시인인 로돌프와 로돌프의 연인인 몸이 아픈 미미, 그 둘만의 가슴 아





픈 아리아는 심금을 울리고 눈물이 고일 정도로 인상적이었다.

가톨릭 문화원 아트센터 실비아 홀에서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주인공인 두 배우의 음색과 피아노연주를 들을 때 가슴 벅찬 감동이 몰려와서 진정한 오페라의 매력에 빠져들 수 있었다. 세계 4대 오페라중의 하나인 푸치니의 대표작인 오페라 라보엠(LABOHEME)을 오랜만에 감상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었다.

오페라가 끝나니 총 출연 배우들과 연출을 맡은 지휘자의 무대 인사가 이어진다. 감동의 여운이 진하게 남아 관객들의 박수갈채는 끊이지 않았다. 역시 세계적인 예술작품은 우리의 삶에 무한의 에너지가 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

자카르타에 와서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푸치니의 고운 음악이 애절하게 전해져와 내 영혼을 잔잔히 적시고 있는 것만 같다. 감동적인 시간을 함께한 시누이와 시누이 친구들도 벌써부터 그리워진다. 나의 감성을 열어주기 위해 잔잔한 정서를 제공해 주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 그네들이 있기에 너무도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를 깊이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누군가

에게 쉽게 잊히는 것만큼 서글픈 일은 없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오래 기억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가 보다.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존재로 기억되길 바란다. 그렇기에 서로를 배려하고 존경하는 마음은 상대방을 닮고 싶다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기에 결과적으로 서로를 이롭게 하며 좋은 만남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다른 사람의 훌륭한 점을 인정하고 칭찬할 줄 알며 본받으려고 노력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한결음 서로에게 다가서게 되는 것 같다.

오랜만에 봐도 늘 만나며 함께 지냈던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도 좋고, 오래 소식 전하지 못하고 지냈어도 언제든지 연락하면 편안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편안한 만남, 아름다운 만남이 가능한 사람...

그런 사람이 열손가락 가득하다면 그 사람은 어느 정도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며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오래 기억되고 싶다면 지나치게 자신만을 내세우지 말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타인을 인정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거기에 한결같은 관심과 배려가 보태어 진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 민속촌 따만 미니(Taman Mini Indonesia Indah) TMII 인도네시아의 조감도

사공 경(한\*인니문화연구원장/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장)

한국의 듀오 서수남과 하청일이 부른 노래 중에 <서울 구경>이라는 노래가 있다. 이 노래가 불리게 된 배경을 돌아보면 불과 30년쯤 전의 한국 실상을 엿볼 수 있다. 오디오 시대에서 비디오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불렀던 것으로 기억하는 이 노래는 당시의 시골 사람들에게 ‘서울’이라는 수도에 대한 환상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시골 사람들의 서울 구경이 얼마나 어려웠던가 하는 슬프고도 낭만적인 현실이 깔려 있다. 경복궁이나 덕수궁을 찾는 시골 사람들의 관광버스가 줄을 이었던 시절은 이제 아득한 추억이 되어 버렸다. 농한기의 농촌 노인들은 단체 해외 관광에 나서고 학생들은 해외로 수학여행을 떠난다. 행불행을 따져보기에 앞서 인류의 모든 문명사는 결국 시간과 공간을 극복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아니었던가.

인도네시아의 민속촌이라 할 “따만 미니” 공원은 한국의 <서울 구경> 시절을 떠오르게 한다. 수도 자카르타의 동남쪽에 위치해 있는 이 공원은 시골에서 수학여행 온 아이들로 늘 북작거린다. 까무잡잡한 얼굴에 눈동자만 반짝거리는 교복 차림의 아이들이 일생을 다녀도 다 둘러보지 못할 나라를 시간적, 공간적인 면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내국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를 여행하는 외국인들에게도 이 공원은 필수 코스가 되어 있다.

1975년에 문을 연 이 공원은 인도네시아의 조감도라 할 만하다.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기획된 공원답게 규모와 내용 면에서 인도네시아인들의 자부심을 충족시키기에 모자람이 없어 보인다. 이 공원의 공간을 채우고 있는 볼거리들은 정부 차원에서 인도네시아를 홍보하는 거대한 광고판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공원 입구에 들어서면 이 민속촌의 로고인 원숭이 하노만이 방문객을 맞이하는데 라마야나의 등장인물로 진리의 상징이다. 이곳에서는 애칭으로 NITRA(니트라)라 불린다. 이 공원의 크기는 160헥타르로 전 대통령 수하르토의 영부인인 Ibu Tien의 제의로 건설되었으며, 1975년 4월20일 완공식을 가졌다. 당시의 인도네시아 경제가 어려웠던 탓에 현실적이고 개혁적인 의식을 가진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국고의 낭비’라 하여 건설 반대 운동까지 일어났으나, 지금은 “인도네시아의 모든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다”는 캐치프레이즈대로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인도네시아 최대의 레크리에이션 센터가 되어 외국에서 오는 귀빈들의 필수적인 견학코스가 되고 있다. 공원 입구에서 리프트를 타고 160헥타르에 이르는 공원의 허공을 가로질러 올라가면서 내려다보면 9헥타르의 커다란 인공 호수 위에 떠 있는 축소된 인도네시아의 중요한 섬들을 로프웨이에서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 설계되어 있고 보트도 마련되어 있다. 이 때 호수는 바다가 되고 물을 이



루고 있는 크고 작은 섬들은 밀림과 문명과 인간과 온갖 동식물들을 품고 있는 거대한 생태의 원천이 된다. 이 입체적인 지도는 인도네시아의 실제 규모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이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를 아는 데는 더없이 좋은 참고자료다. 섬들은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파스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섬은 낭만으로서의 섬이 아니라 치열하게 견뎌가야 하는 삶의 터전일 터이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33개 주인데 33개 주를 나타내는 인도네시아의 전통가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옥 안에는 각 민족의 문화를 상징하는 물품들과 전통 옷이 진열되어 있다. 각주의 대표적인 전통가옥을 둘러보면 이들이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기 전 각기 다른 독립된 문화와 삶을 영위했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한 국가는 될 수 있으나 하나의 민족은 끝내 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 미래에도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불행한 예감은 그다지 틀리지 않아 보인다.

1999년에 독립을 이룬 동티모르는 인도네시아의 역사적이고 민족적인 한계를 분명하게 상징한다. 덕분에 굳대를 파견한 한국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지만 인도네시아



라는 국가가 지니고 있는 원초적인 슬픔과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게 되고 말았다.

인도네시아의 현실적인 고통을 이 공원에서 체험할 수는 없다. 비정하지만 고통은 방문객의 몫이 아니다. 독립 운동과 민족적, 종교적인 갈등이 계속되고 있을 때에도 달팽이 모양을 한 다목적 홀 아이맥스(IMAX) 영화관 “Keong Emas”에서는 30분으로 압축한 인도네시아 소개 영화 - 인도네시아의 섬들과 사람들에 대해 상영한다. 그들의 자연과 전통과 관혼상제와 춤과 노래와 문화를 공평하게 화면에 담아낸다. 저 화면 뒤쪽이 숨기고 있는 갈등을 생각하지 않고 화면만을 바라보는 일이 인도네시아의 현실이 아닌 진실일 것이라는 착각은 잔인하고 비정한 듯 하지만 방문객에게는 오히려 즐겁고 흥미로운 일이다. 그래서 여행자는 행복한 존재인지도 모른다. 또 웅장한 건축미를 자랑하는 박물관 17개가 있으며 그 중에는 가스, 전기 그리고 새 에너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도 있으며, 미술품과 작품이 전시되어 있으며 곤충, 전쟁 영웅들, 통신, 전파, 스포츠 그리고 아스맛 문화를 보여준다. 파충류 박물관에서는 신청을 하면 뱀쇼도 보여준다. 허브, 작투스, 플라타너, 앵글렉 그리고 다양한 화초로 이루어진 꽃 정원이 있다. 새 공원과 상쾌한 물이 있는 호수도 있다. 12개의 공원, 시계 꽃동산, 2개 호스텔, 2개의 영화관 (Keong Emas, Tanah Airku) 미니 열차, 케이블카, 모노레일스카이 리프트, 보트 등이 있다. APEC회의가 1994년에 보고르에서 열렸는데 이를 기념하기 위해 APEC 동산을 만들었







으며, 이 때 참석한 각국 정상외의 영부인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기념비가 있다. 우리나라 손영순 영부인 사인도 있다.

TMII에는 종교의 다양성을 통해 인도네시아 문화를 나타내는 공간도 있다. 모스크, 힌두사원, 불교사원, 성당, 교회, 중국 사원이 있다. 국민의 90% 이상이 이슬람교를 믿는다. 절대적이라 해도 될 만한 수치다. 종교의 특징인 하나는 배타성인데 다들 자신들의 종교는 배타적이지 않거나 절대적이라고 말하는 그 말 또한 아이러니다. 그 아이러니가 이 공원에 각 종교의 사원을 세우게 했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라는 홍보성 의미가 짙으나 이들 종교적인 건축물들을 바라보는 일은 즐겁지만은 않다. 역사적으로 종교 문제로 인한 갈등과 사고가 많은 나라 중의 하나이니까.

그리고 이 공원을 구경하는 큰 즐거움의 하나는 새와 꽃을 보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자연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생물들의 경이로운 자태는 온갖 골치 아픈 현실로부터 자신을 한순간 잊기에 충분하다. 꽃의 현란함에 몸을 맡기고 가슴으로 새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인도네시아는 자연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나라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 인간은 문명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려 나아가고 있지만 또한 소멸되거나 변형되지 않은 자연을 간직하고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라는 걸 깨닫는 순간, '인도네시아' 라는 이름 앞에 자연이 확 펼쳐지는 환상에 가슴이 시원해진다.

자연도 좋고 인공도 좋지만 이 공원의 백미는 아무래도 각 민속관을 세세하게 눈여겨보는 일이다. 민속관을 드나들다 보면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놓여 있는 삶의 다양성에 놀라고, 삶의 지난함에 놀라게 된다. 이곳에 오면 한국의 용인 민속촌이나 서울 남산의 한옥마을이 생각난다. 한 나라의 전통적인 고유한 삶의 양식을 바라보는 일은 그 자체가 볼거리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나라를 문화적으로 이해하는 첩경이다. TAMAN MINI 민속촌은 인도네시아가 얼마나 많은 종족과 각기 다른 문화들로 혼재되어 있는 나라인가를 알게 해 준다. 비록 하나의 국기와 하나의 이름 아래 존재하고 있지만 그 내부의 다양성을 보면 한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이 신기하게 느껴진다.

인도네시아 옛 집은 주로 강이나 숲 속에 야생동물이나 물을 피하기 위해 높게 지었다. 또 땅에는 나쁜 기운이 있다고 믿었다. 칼리만탄 지역처럼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하는 곳도 있었다. 이 지역의 다약족의 긴 집(rumah lamin)은 보안을 위해 출입문은 하나만 만들었다. Rumah lamin에는 추상적이고 독특한 모양으로 장식을 한다. 용은 영웅적인 신비한 힘을, 귀족을 의미하는 코빨새는 지혜의 숭고함을, 오징어는 국민을, 가면(kedok, topeng)은 평화를 나타낸다. 용과 코빨새 장식은 귀족의 주택에서, 오징어와 가면 장식은 일반인들의 주택에서 찾아볼 수 있다.

너무도 유명한 서부 수마트라의 미낭까바우(미낭은 승리, 까바우는 소를 상징) 가옥 지붕은 그 지역을 지켜낸 소의 안장과 소뿔을 상징한다. 이러한 가옥을 루마 가당이라고 부르는데 가당의 어원에는 '크다, 여러가지 일을 한다.' 는 의미가 들어 있다. 즉 '다양한 것이 이루어진다.' 는 뜻이다. 창문의 수는 방의 수를 나타내며 소뿔을 형상화한 지붕 모습에서 꼭지 수는 이 가옥에 사는 세대수를 나타낸다. 이곳은 의상이 화려하고 손재주가 뛰어나고 가옥의 벽은 화려하다. 문양은 주로 꽃과 농산물로 풍요를 상징한다. 이곳은 해상무역의 발달로 남자들은 바다로 나가야 했으므로 모계사회가 되었다. 서부 수마트라 관 안에 들어가면





화려한 의상과 장신구가 많이 진열되어 있다. 결혼식 의상을 빌려 입고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되리라 생각이 든다.

특별자치구 아쎬 지역은 그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ACEH:A아랍+C중국+E유럽+H힌두)지역상 여러 곳의 문화를 받아들인 곳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곳으로 이슬람법이 우세한 곳이다. 또 비행기가 한 대 전시되어 있는데 이는 가루다 1호로 항공 독립 운동을 위해 아쎬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기증했다. 독립운동가들은 이 비행기를 이용했으며, 독립을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나타내기 위해 이곳에 기증했다.

배 모양으로 된 토라자 가옥 또한 흥미롭다. 파나 토라자(Tana Toraja)의 전통가옥은 높은 각주 위에 집을 짓고 그 위에 배를 얹어 놓은 듯한 형태인데 이는 배를 타고 온 조상들(베트남에서 왔다는 설)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장대한 배 모양으로 만든 지붕은 주로 대나무로 만들어져 있으며 짐승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단단하고 굵은 둥근 기둥에 목직하게 지탱된 양쪽 처마는 하늘로 치켜져 있다. 토라자족은 술라웨시 섬의 중부 산악지대에서 농경생활을 주로 하고 있으며 독특한 생활양식을 고집하고 있다. 벽장식은 흰색(순결), 검은색(죽음), 노란색 주황색의 채색무늬로 채워지고 장닭, 물소의 추상 무늬가 좌우대칭으로 그려져 있으며 삶의 순환을 의미하는 문양도 있다. 암굴묘의 규모와 집 앞에 장식된 물소 뿔의 수는 권위와 부를 상징한다. 집은 모두 북쪽으로 향하는데 북쪽이 리더가 되고 중요하고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파나 토라자의 암굴 묘는 크기에 따라 그 집안의 부의 정도를 알 수 있는데 성대한 장례의식을 하며 높은 벼랑에 만든 가족 암굴묘는 큰 관광 자원

이다. 암굴묘의 윗부분은 어른이 묻힌다. 장례의식은 사체처리, 장례 의식, 인형 만들기, 매장 등 몇 단계로 나누어져 그때마다 물소나 돼지를 잡아 마을 사람들에게 대접한다. 사는 것보다 죽는데 돈이 더 많이 드는 곳이다. 암굴묘 발코니에 인형이 일렬로 줄지어 있는데 이는 묘에 묻힌 이의 성별·나이·표정·옷까지 정확히 나타낸다. 시신을 말리는데 2년 정도 걸리며 장례비용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린다. 이때 향신료로 커피를 사용한다. 파푸아의 다니 종족은 주로 산간 지방에서 생활하며 돼지가 귀중한 재산이다. 부인을 한 명 맞이하기 위해 5, 6마리의 돼지나 값진 돌도끼를 처가에 바친다.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추도의 뜻으로 손마디를 자르기도 하며, 미라로 만든 추장은 자기네 종족을 지켜준다고 믿는데 지금은 관광 상품이 되었다. 이곳은 1969년 인도네시아에 합병되었으며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미개한 지역이다. 지금은 정부의 개발정책에 힘입어 현대와 원시가 공존한다. 해골을 집안에 비치하는 섬뜩하고 특이한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다.

인간의 머리와 손이 생각하고 만들고 살아가는 방식을 엿보면서, 개별로서의 인간은 나약한 존재지



만 집단으로서, 문화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역설적으로 알게 되는 이 체험은 어쩌면 자신의 가치관을 되흔들 수도 있을 터이다. 죽음에 대한 다양한 인식과 그에 따른 장례의식은 인간의 한계와 염원을 동시에 담아낸다. 문명과 자연, 개화와 미개의 경계를 넘나들며 과거 쪽에서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도 있다. 이 발견의 소중한 기회를 이 공원은 던져주고 있다.

어떠한 장소든지 장소는 공간을 포함하며 공간은 사물들의 존재를 허락한다. 그 장소에 사물들의 삶이 있고 새로움이 있다. 책은 그러한 풍경을 묘사하지만 주관적이기 십상이어서 온전한 풍경이 아니다. 이 공원에는 인간과 자연이 있고 그것의 거리를 직조한 문명이 있다. 문명 속에 삶의 고난과 슬픔과 기쁨이 있다. 이러한 풍경들은 대부분 정적이지만 운이 좋으면 각 민속관에서 주최하는 전통문화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 원색의 춤과 노래와 악기들의 신비한 소리는 인간 영혼의 깊이가 한없이 깊다는 것을 경건하게 느끼게 한다. 묘사는 어렵지만 체험은 더없이 명쾌하고 단순하다. 여행자는 그래서 행복한 존재인지 모른다.

주소: Jl. Raya Taman Mini 1 Pondok Gede,  
Jakarta Timur  
전화: (021) 293-78594 / 293-78595  
휴장: 월요일 개장: 화~일 09:00~16:00(입장료  
판매시간)입장료: 10,000Rp



251회 문화탐방

비의 도시, 식물원의 도시 보고르 (Bogor)

- 장소 : 사슴이 뛰어노는 대통령 궁,  
Istana Bogor  
자연이 살아 숨 쉬는 박물관,  
Kebun Raya
- 일 시 : 2014년 4월 23일 (수) 07:00-16:00  
연구원(대사관 옆)에서 출발
- 주 소 : Jl. Gatot Subroto Kav. 58  
코리아센터 404 호
- 연락처: 0817708253 (박선이 수석팀장)  
021-527-3630  
081584797879 (채인숙 부원장)

E-Mail : ballonjoa@hanmail.net  
lovekoin@hotmail.com





# 너트메그 (Nutmeg, Pala)

## 대항해 시대를 열게한 향료

일반명: Nutmeg (영어), Buah Pala(인니, 말레이시아), 육두구(한국)

과 명: 육두구과 (Family: Myristicaceae)

학 명: *Myristica fragrans* Houtt.

기원지: 인도네시아 말루쿠제도. 일명 향료 섬 일대

분 포: 인도네시아(술라웨시, 파푸아, 아체, 말루쿠 지역에서 재배), 동남아, 그레나다

이 용: 식품첨가제(시럽, 음료, 푸딩), 의약품, 향정신성 의약품

모양새: 살구처럼 생겼다. 노란 열매껍질 안에 딱딱하고 둥근 씨가 들어있다. 씨에는 붉은색 그물 모양의 씨앗 껍질이 있다.

백진협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인니생물소재연구센터장)

### 향료 섬, 향료 무역

너트메그는 정향(Clove)과 더불어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향신료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부아 빨라' (Buah Pala) 라 부르며 중국과 한국에선 '육두구' 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예전에는 향료제도(Spice Islands)로 알려진 인도네시아 동부의 말루쿠제도(Molucas)의 작은 섬에서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한때 정향과 육두구를 놓고 15세기 초반부터 인도네시아를 배경으로 막대한 이권이 걸린 향료 무역 독점을 위한 서구열강들의 치열한 투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게 한 대항해시대의 시작은 결국 향료와 향료무역의 새로운 루트를 찾기 위해 본격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육두구는 특유의 향긋한 향기와 따듯한 맛으로 유

명합니다. Nutmeg는 '사향 향기가 있는 호두' 라는 뜻입니다. 정향이나 후추보다 향이 자극적이지 않지만, 묘하게 고급스러운 향미가 있어 누린내나 비린내를 제거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자양강장제와 같은 약재로 쓰였으며 질병이 냄새를 통해 전이된다고 믿었던 일부 유럽의 상류층 귀족들은 육두구를 농축한 액체를 몸에 뿌리거나 육두구를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중세시대 육두구는 매우 귀중한 향신료로써 그 값어치는 같은 무게의 황금과 값이 같았다고 합니다. 중세에는 아랍상인들이 베네치아에서 육두구를 고가로 판매했으나 그 기원지와 유통은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결국, 1511년 포르투갈 항해사들이

육두구의 생산지인 말라카 반다(Malaca Banda)섬에 도착하여 유럽으로 직접 수입하기 시작했고, 17세기부터는 네덜란드가 육두구를 독점하면서 종자 반출을 금지시켜 유럽시장에서 매우 비싼 향신료로 거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씨를 반출하여 그들의 식민지인 그레나다(베네수엘라 위에 있는 섬나라)에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레나다 국기에 육두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육두구 생산량은 인도네시아가 약 75%를 차지하며 그레나다가 20% 나머지 일부 동남아국가에서 생산합니다.

### 모양새와 주요성분

육두구는 열대 상록수로 약 20m 높이까지 자랍니다. 잎은 어긋나며 타원형에서 달걀모양의 피침형이고 약 10cm 정도 길이고 진한 녹색이며 딱딱한 편입니다. 잎을 으깨면 향긋한 향이 납니다. 꽃은 작고 노란색이며 종모양이고 잎겨드랑이에서 발달합니다. 열매는 핵과로 마치 살구처럼 생겼는데 도톰한 열매껍질 안에 딱딱하고 둥근 씨가 들어 있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노란색으로 변하고 열매껍질이 두 개의 봉선을 따라서 벌어지면서 안쪽에 붉은 종의(種衣, 씨앗껍질)가 보입니다. 종의는 붉은색의 넓적한 그물망 모양으로 씨앗을 감싸고 있는데 잘 분리됩니다. 이를 건조시켜 잘게 부순 것이 향신료 메이스(mace)입니다.

향신료로 거래되는 것은 육두구 씨를 갈아서 만든 너트맹(nutmeg)과 씨앗을 감싸고 있는 붉은색 망사모양의 씨앗 껍질인 메이스(mace)를 말려서 가루로 만든 것입니다. 너트맹과 메이스에는 7~14%의 정유(精油)가 들어 있는데 그 주요성분은 피넨(d-pinene)·캄펜(d-camphene) 등입니다. 육두구를 짜면 약 24~30%의 고체 정유가 나오는데 트리미리스틴이 주요성분이며 육두구 버터 또는 육두구 유라고 부릅니다. 이들 기름은 조미료나 구풍제로 쓰이며, 비누와 향수의 향을 내는데에도 이용합니다. 정유는 화장품과 의약품 제조에도 쓰입니다. 육두구 버터로 만든 연고는 유도자극약으로 쓰거나 류머티즘을 치료하는 데 써왔습니다.



### 식품 첨가제

너트맹과 메이스는 특히 식품첨가제로 광범위하게 쓰입니다. 시럽이나 음료, 수프, 푸딩, 쿠키, 케이크 등에 주로 넣습니다. 추출한 정유는 통조림, 캔 음료의 맛을 내는 첨가제로, 육두구 과육을 이용하여 잼, 젤리를 만들며 종자로부터는 너트맹 버터를 만들기도 합니다. 메이스는 너트맹보다 단맛은 덜하지만 씹는 질감이 좋아서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고기의 누린내를 없애주고 생선요리나, 소스, 피클, 케첩 등에 많이 사용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Soto나 Baso 등의 수프에 넣기도 하며 육두구 과육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과육을 얇게 잘라 설탕, 소금, 물은 넣고 불에 졸여 ‘마니산 팔라(Manisan pala)’라 부르는 향긋한 젤리 같은 사탕을 만들어먹었습니다.

### 의약적 이용과 부작용

육두구는 한방에서 소화제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뱃속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소화를 촉진하며 장기능을 좋게 해준다고 합니다. 소량의 복용만으로 가스제거 및 소화촉진 식용증진의 효과가 있으며 설사와 류머티즘, 구토, 메스꺼움 등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하지만 과다복용 시 독성과 환각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향정신작용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드라마 대장금(大長今)에서 장금이가 미각을 잃게 된 이유가 바로 육두구였습니다. 약리작용에 관해선 논란이 있으나 Myristicin 이 과다복용시 환각작용과 구토, 간질 증상을 등의 부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한때 감옥의 죄수들이 환각제의 대용으로 썼다고 합니다. 특히 재즈 색소폰리스트 찰리 파커의 경우 약이 없을 때 육두구 가루를 콜라 등의 탄산음료에 풀어서 대용품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약류와 마찬가지로 과다 복용하면 사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인도네시아 화교에게 '황금시대' 오나

글: 신성철 데일리인도네시아 대표

최근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의 정관계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자카르타 일부 사립학교 건물에는 중국어로 학교이름을 쓴 간판이 달려있다. 중국어로 된 신문도 가판대에 버젓이 나와 있다. 서점에서 중국어 교재와 중국어 서적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음력설에는 중국식 장식품과 복장이 쇼핑몰을 점령하고, 중국식 사자춤인 바롱사이는 인도네시아 행사장에서 빠질 수 없는 프로그램이 되었다. 불과 16년 전인 수하르토 집권기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변화다. 그동안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어 학교, 중국어 신문, 음력설 등의 중국문화를 일체 금지했었다. 또한 화교들은 국립대학 응시, 군인 지원, 공무원 응시 등에서 제한을 당하는 등 사회적·제도적으로 많은 차별을 받았다.

### 인도네시아 인구의 4%인 1천만 명이 화교

통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7세기 당나라 때 무역을 하면서 시작됐다. 중국인들이 인도네시아로 대거 이동하게 된 것은 18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이다. 중국계 인도네시아인의 뿌리는 이주해온 시기와 환경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다수는 후지엔, 광둥, 하이난 성 등 중국 남부에서 왔다. 첫 번째 큰 흐름은 15세기 초에 활발했던 무역 활

동에서 시작됐다. 해상무역이 발달했던 중국 후지엔 성 사람들이 이때 많이 이주했는데, 동부와 중부 자바섬, 수마트라섬 서쪽 해안에 자리잡았다. 이후 18세기부터는 주로 주석 광산과 고무·사탕수수 농장 개발 바람을 타고 이주해 온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다.

### 1740년 네덜란드 식민지정부와 중국인 충돌

무역상과 노동자로 이주한 중국인들은 특유의 상술과 연대 및 부지런함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자리 잡고 경제적 영향력이 커져졌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현지인과의 갈등과 반목으로 인해 인도네시아에서 내부의 갈등이 커질 때마다 표적이 됐다. 인도네시아를 지배했던 네덜란드 식민지정부와 중국계의 갈등은 18세기 무렵 시작됐다. 당시 인도네시아 주요 무역항이었던 바따비아(현재 자카르타)로 들어오는 중국인 무역상의 수가 점점 많아지자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늘어나는 중국 무역상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다. 자연히 중국인의 숫자는 늘어나고 사회적 지위 또한 높아져 네덜란드인의 경제적 경쟁자로 부상했다. 바따비아에는 중국인만이 사는 거리가 조성되었고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들은 일정



수준의 독립된 사법권을 보장받으면서 세금 징수 업무를 대행하고 강제운반을 관리하는 실질적 실력자로 성장했다. 또한 바파비아 인근에는 사탕수수 농장에 대거 유입된 중국 노동력이 있었다. 1720년에 값싼 브라질 사탕수수가 공급되면서, 인도네시아 사탕수수 농장이 파산하자 일자리를 잃은 중국인 노동자들이 비적이 되어갔다. 이에 식민지정부는 중국인 노동자들을 스리랑카로 보내려 했다. 하지만 중국인 노동자들 사이에서 자신들을 바다에 빠뜨려 죽이려 한다는 소문이 퍼졌고 불안과 동요가 일었다. 결국 1740년 중국 이민자들이 대규모 폭동을 일으키자 식민지정부는 바파비아와 인근의 중국인 거주지를 파괴하고 대규모 학살을 자행했다.

### 1965년 930사태

1965년 9월 30일 밤, 인도네시아공산당(PKI)은 자카르타에서 7명의 군부장성 집을 습격해 6명을 살해하며 쿠데타를 일으켰다. 당시 수하르토 소장이 중심이 된 우파 군부는 이 쿠데타를 빠르게 진압했다. 수하르토 소장이 수카르노 대통령을 연금하고 역쿠데타로 국가 권력을 장악한 1965년은 인도네시아 화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해이다. 군부를 장악한 수하르토는 이 쿠데타를 공산당의 소행으로 몰아 대규모 학살을 자행했다. 이때 거의 50만 명 정도가 죽었을 것으로 추정될 뿐 실제로 얼마나 많은 화교가 공산당으로 몰려 죽었는지 정확한 통계는 없다.

정권을 장악한 수하르토는 ‘중국계 동화 정책’을 펼친다. 1967년 수하르토가 내놓은 ‘중국인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정책’에 따르면 중국어로 된 공식 문서를 폐지하고 중국의 종교 행사는 집 안에서 하는 것으로 제한했다. 중국어 학교도 폐쇄했다. 또한 중국 이름을 인도네시아식으로 개명하도록 했다.

### 1998년 5월 사태

1998년 5월 수하르토 독재정권이 무너졌을 때도 화교를 표적으로 엄청난 폭력이 자행됐다. 아시아 외환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직후 실업률이 치솟고 가뭄과 산불 등 자연재해까지 겹치자 인도네시아 민심은 극도로 흥흥해졌다. 이런 대내외적인 상황에서 1998년 3월 국민협의회가 수하르토의 7번째 연임 결정을 발표하자 분노한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수하르토를 둘러싼 군부세력들은

갈등을 봉합하고자 반화교 정서를 활용해 대규모 시위를 기획하고 부추겼다. 이 때도 화교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 화교의 정계 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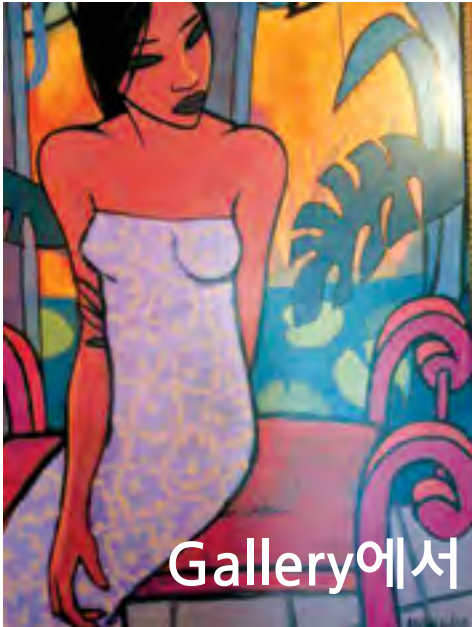
수하르토가 쫓겨난 후 중국계의 수난은 끝난 듯 보인다. 1999년 총선 직후 상원적인 국민협의회(MPR)에서 선출된 압두라만 와히트(일명: 구스두르) 대통령은 자신이 중국계임을 인정했다. 와히트 정권은 중국계인 킷키안기를 경제조정장관으로 선임했고, 2004년 인도네시아 최초로 직접선거로 선출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은 중국계 여성 마리 엘카 빵에스뚜를 무역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2012년 자카르타 지방단체장 선거에서 중국계인 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아혹)가 조꼬 위도도(조꼬위)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자카르타 부지사에 당선됐다. 2014년 대선에서는 중국계 기업가인 하리 따누수딕요 MNC그룹 회장이 위란또 하누라당 총재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했다. 더욱 놀랄만한 사실은 이슬람계 미디어인 voa-islam.com의 보도다. 보아-이슬람닷컴은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꼽히는 투쟁민주당(PDIP) 소속 조꼬위 자카르타주지사가 중국계라고 보도했다.

최근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은 화교에 대한 차별 논란이 되어 왔던 1967년 수하르토가 내놓은 ‘중국인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정책’을 폐지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의 공식 인도네시아어 명칭을 ‘찌나(Cina)’에서 띠옹호아(Tionghoa, 중화) 또는 띠옹콕(Tiongkok, 중국)으로 변경했다. 이는 최강자로 부상하는 중국과 화교를 끌어안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근 화교들이 인도네시아에서 황금시대를 맞는 듯하다. 이미 인도네시아에서 경제적으로 상당한 성공을 거둔 화교들이 부를 앞세워 정치권에 진입을 시도하고 사회적인 발언의 기회와 강도도 높이고 있다. 대외적으로 지난 20여년 간 중국의 영향력이 갑자기 커진 점도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한 화교들의 교섭력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토착민들이 화교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불안하다. 대다수의 화교들은 중국계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주저하고 주변을 경계한다. 이번 총선과 대선에서 화교들이 일정한 부분이라도 성과를 낸다면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2014년은 중국계 인도네시아인에게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문화 탐방 후기



## Gallery에서 예술과 자연의 향기를 만나다

김금사(파이디온 달란트 학교)

3월 15일 토요일 오전, 모처럼의 화창한 날씨만큼이나 밝고 환한 모습으로 헤리티지 소사이어티 회원들이 약속 장소인 Duta Gallery에 속속들이 모여 미술관 탐방이 시작되었다. “헤니”라는 인도네시아인 가이드의 미술관과 전시작품, 작가에 대한 소개와 함께 미술 전공자이기도 한 김선교사의 통역과 부연 설명으로 이곳에 전시된 작품들을 감상하기 시작하였다.

Duta Gallery는 자카르타에서 외국인을 자주, 또 많이 만날 수 있는 Kemang 지역에 위치해 있다. 1986년 당시 교육 & 문화부 장관인 Bp. Fuad Hasan에 의해서 개관되었고, 오너인 Bp. Wiwoho Basuki가 운영하고 있으며 그의 자택도 미술관 안쪽에 있다고 한다. 그리고 프랑스인 Didier Hamel씨가 미술관 관장으로 현재 재직하고 있다. 꼼꼼한 성격의 Bp. Wiwoho Basuki가 긴 세월 동안 Duta Gallery의 전시장, 정원등 모든 곳곳을 하나에서 열까지 세심히 살펴가며 이제까지도 정성을 다해 가꿔 나가고 있다고 전하였다. 아직까지 개관이 미정인 한 전시공간은 10년째 준비하고 있는 전시장으로, 그 전시장에는 약 1

천여 점의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고도 귀뜸해주었다. 몇몇 회원들은 그 전시장이 빠른 시일 내에 개관되어 그 많은 작품들도 함께 속히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설 전시관에서는 Umar, Sukanto등의 인도네시아인 화가들 뿐만 아니라 Pierre Guillaume, R.Smith, Locatelly, Theo Meier 등 프랑스, 독일, 네델란드, 아르헨티나 등에서 온 화가들의 작품들도 전시되어 있었다. 화병 안의 화려한 꽃들을 조화롭고 칼러플하게 그려낸 정물화, 발리의 논과 야자가 있는 풍경을 단지 붉은 색조만으로 처리한 풍경화,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모습을 바틱 문양과 함께 재미있게 표현한 생활 경험화 등 구상, 추상, 반추상의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어진 많은 회화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여러 포즈의 여성 인체 조각 몇 점과 고양이를 노랑색조로 디자인화하여 마치 어린아이들 놀이기구의 느낌이 드는 조형물도 눈에 띄었다. 판넬 목공에 그림을 그려 세워 놓은 작품도 있고, 병풍 형태로 그려진 그림과 파노라마식 그림도 몇 점이 있었다. 인도네시아 여성 화가인 Ibu Riyani의 일러스

트레이션 작품과 그녀의 부군이 되는 Bp. Bondan의 유희,해학적인 작품도 나란히 전시되어 있었다. 가이드 “해니 “는 함께 동거 동락하는 남편과 아내의 작품 성향이 ‘너무 다르지 않냐’고 그녀 나름대로의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다. 서로 다른 기법과 다른 성향의 작품을 가지고 한 전시장 안에서 부부가 함께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것도 색다르고 좋아 보였다. 조국의 부부화가인 김기창 화백과 그에게 참으로 헌신적이었던 아내 박내현 화가가 언뜻 생각나기도 하였다.

이번 3월 한 달간 특별 기획전을 열고 있는 다른 방으로 가서 계속 작품 관람을 하였다. 수라바야에서 출생하고, 발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Bp. Hesdi 라는 화가의 작품 40여점이 “musician”이라는 테마로 전시되고 있었다. 작품의 대부분이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의 원색에서 뽑어져 나오는 강렬하고 열정적인 느낌으로 전체 작품들이 하나의 통일감을 이루고 있었다. 각각의 작품 속에 그려진 악기들은 각자의 소리를 가지고서 멋진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듯하였다. 작품 설명을 들으며 하나 하나의 작품들을 카메라에 열심히 진지하게 담아내는 회원들의 모습이 참으로 활기차게 느껴졌다.

전시장에서 작품 감상을 마친 후에 하나님의 숨씨로 지으신 각종 수목들과 화초, 아주 조그만 이끼마저도 너무나 아름다운 정원으로 나와서 회원들 중에는 개인 사진을 찍기도 하고, 삼삼오오 모여서 정겨운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다음

탐방 장소인 근처의 Edwin’s Gallery로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오너인 Bp. Edwin Rahardjo의 강의와도 같은 자세한 설명으로 인도네시아 미술 현황도 알게 되었다. 빠당, 반둥, 족자가 인도네시아 회화의 삼대 산맥을 이루며, 그동안의 발전과 변화되어온 이야기와 그중 족자에서 활동하고 있는 화가들이 가장 많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그의 견해로는 한국 화가의 작품들이 좀 어떤 틀에 매여 있는 듯한 느낌이 있다고도 하며, 올해 11월에는 한국작가 기획전이 이 전시장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전하였다. 실험적 설치 작품 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 Bp. Edwin Rahardjo의 작품 여러 점도 함께 전시되고 있었다. 기계의 부속과 톱니바퀴 등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조각의 형태로 만든 키네틱 아트와 아주 정밀하게 묘사되어 마치 사진처럼 보이는 극사실주의 회화 작품도 있었다. 회원들은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기도 하면서 여러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었다. 회원들은 전시된 회화 작품들과 설치 작품들을 각자의 카메라와 휴대폰에 차곡차곡담고 이곳 미술관의 오너인 Bp. Edwin Rahardjo와 함께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회원 간의 오찬을 하기 위하여 근처의 한 레스토랑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번에 문화탐방을 하게 된 Duta Gallery와 Edwin’s Gallery 두 곳은 특별히 한국에서 방문하는 가족이나 친척, 친지들이 함께 여러 장르의 미술 작품도 감상할 수 있고 아름다운 풍경의 정원에서 추억의 사진도 만들어가며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으로 감히 추천을 해도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다.







## 인도네시아 법률해설 부동산 법(3)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mailto: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전호에서 계속)

### 12. 사용권(Hak Pakai)

사용권은 국가 혹은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토지로부터 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한 한시적 권리이다.

12.1. 사용권 보유가 가능한 자는 다음과 같다.

- 12.1.1. 인도네시아 국적 보유자
- 12.1.2. 인도네시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인도네시아영토 내에 법적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
- 12.1.3. 정부 각 부처, 기관 및 지방자치 정부
- 12.1.4. 종교 및 사회단체
- 12.1.5.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기한부 거주허가서(KITAS 혹은 KITAP 보유자)
- 12.1.6. 인도네시아에 법적인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 법인의 지사(\*상사의 지사)
- 12.1.7. 외국정부 혹은 국제기구의 대표부(\*대사관, 총영사관, UN 대표부, UNICEF 대표부, EU 대표부, ASEAN 대표부 등)

12.2. 사용권 보유자의 법적 신분이 상기 “12.1항” 에서 규정한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는 1(일)년 이내에 유자격자에게 토지권을 양도해야 하며, 1(일)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권이 실효한다.

12.3. 사용권은 국가 소유 토지, 개발권 토지 및 소유권 토지에 부여할 수 있다.

국가 소유 토지 혹은 개발권 토지에 사용권 부여 여부 결정권은 중앙 토지원장에게 있으며 타인 소유 소유권 토지에 사용권 부여는 반드시 토지문서 작성관이 토지 소유권 보유자와 사용자 간에 작성한 사용권 제공 문서에 의해야 하며 사용권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한다.

12.4. 사용권 유효 기간

12.4.1. 국가 토지에 대한 사용권은 최초 최장

25(이십오년)년을 주며 25년이 지나면 최장 20(이십)년 연장이 가능하며 다시 최장 25(이십오)년 갱신이 가능하다. 토지를 정부 각 부처, 기관, 종교 및 사회단체 혹은 외국정부 혹은 국제기구의 대표부(\*대사관, 총영사관, UN 대표부, UNICEF 대표부, EU 대표부, ASEAN 대표부 등)가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연장이 가능하다.

12.4.2.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권 연장 조건은 토지가 사용권 부여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어야 하며 사용권 부여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며 사용권 보유자가 상술한 “12.1.항”의 법적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늦어도 만기 2(이)년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12.4.3. 투자 목적 사용권인 경우에는 최초 25년, 연장 20년, 갱신 25년 토탈 70(칠십)년을 일시에 줄 수 있다.

12.4.4.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권 유효 기간은 최장 25(이십오)년을 허용하나 기간 연장을 불허하며 만기가 되면 토지문서 작성관이 소유권 보유자와 사용권자 간에 체결한 토지 문서에 근거하여 신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사용권을 반드시 등기해야 한다.

#### 12.5. 사용권 보유자의 의무

12.5.1. 법정 공과금을 지불해야 한다. 공식 경비는 사용권 취득세는 5%이며 다른 공과금이 더 있다.

12.5.2. 토지 사용권을 부여하는 정부의 결정서에 있는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해야 하며 토지 및 건축물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하며 환경 훼손이 없게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

12.5.3. 사용권이 실효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국가에 반환해야 하며 등기권리증서원본도 정부에 반환해야 한다.

12.6. 사용권 토지에 담보권 설정이 가능하다. 즉 담보물로 제공이 가능하다.

12.7. 사용권 토지를 매매, 교환, 출자, 증여 및 상속으로 권리 양도가 가능하다.

12.8. 사용권 토지에 대한 매매는 반드시 토지문서 작성관(PPAT)이 작성한 매매증서로 해야 한다.

#### 12.9. 사용권 실효

12.9.1. 사용권 등기 권리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용권 만기일이 되면 사용권은 실효한다. 따라서 사용권 토지(부동산)을 매입 시에는 등기 권리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만기일에 유념해야 한다.

12.9.2. 사용권 보유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서 사용권을 취소시킬 수 있으며 법원의 확정판결문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권은 실효하며, 사용권 보유자가 만기일 전에 자진 반납하는 경우에도 사용권이 실효하며, 공익을 위해 국가에서 수용하는 경우에도 실효하며, 사용권 보유자가 인도네시아 국적을 상실하고 1(일)년 이내에 해당 토지를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효하며,

사용권 보유 법인이 법인자격을 상실한지 1(일) 이내에 사용권을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권은 실효하며 해당 토지가 천재지변으로 유실되는 경우에도 실효한다.

12.10.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하여 사용권 보유자가 사용권을 연장 혹은 갱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 사용권 보유자는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 혹은 건축물 등을 자신의 비용으로 완전히 철거하여 빈 토지 상태로 사용권 실효일로부터 1(일)년 이내에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전 사용권 보유자가 건축물 혹은 건물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에는 정부에서 철거하고 그 철거 비용은 전 사용권 보유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국가에서 구축물 혹은 건물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전 사용권 보유자에게 구축물 혹은 건물에 대하여 배상해야 한다.

12.11. 개인 소유 토지 혹은 개발권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실효하는 경우에는 전 사용권 보유자는 해당 토지를 소유권 혹은 개발권 보유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사용권 설정 시 약정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 13. 부동산매매 서류 작성

13.1. 부동산 매매서류는 반드시 공증인 혹은 토지문서 작성관(PPAT)이 작성해야 한다. PPAT 업무는 면장 혹은 구청장이 수행하는 지역도 있다. (\*면장이나 구청장은 공증인에 비해 수수료가 비싸므로 PPAT 혹은 공증인 이용이 유리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면장 혹은 구청장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13.2. 통상 매도자의 의무사항과 매입자의 의무사항을 약정해서 매매 약정서를 먼저 작성 후에, 각각의 의무사항이 이행되면 매매증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바로 매매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다. 거래되는 부동산의 등기 권리증 유무, 매도자

의 형편, 매입자의 형편 등을 감안해서 방안을 결정하게 되나, 어느 방법을 택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전문가와 상의해서 최종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4. 부동산 중개업체

14.1. 부동산 중개업체의 수가 별로 많지 않으며, 대부분의 중개업체는 부동산에 대하여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에서와 같은 세련된 중개 서비스 기대는 무리이다. 필요한 부동산을 원매자가 열심히 찾아야 원하는 부동산 매입이 가능한 실정이다.

14.2. 부동산 중개는 외국인에게는 불허하고 있는 업종이나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한인들이 있으며, 주거목적 아파트 혹은 주택 매입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산업용 토지, 공장 혹은 대형 부동산 매입은 한인 중개인보다는 인도네시아의 전반적인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의 조언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5. 부동산 중개비

인도네시아에서 부동산 중개비는 매도자가 부담하는 오래된 관행이 있다. 돈을 내는 사람은 부동산 중개비를 부담하지 않고 돈을 받는 사람이 중개비 전액을 부담한다. 통상 매매의 경우는 거래액의 3%, 임대차의 경우는 5%이다. 그러나 매입자가 특별한 주문을 한 경우에는 매입자에게도 중개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 16. 외국인의 아파트 매입

사용권 토지 위에 건축된 아파트는 KITAS 혹은 KITAP을 보유한 외국인도 매입이 가능하나 거의 모든 아파트는 건축권 토지 위에 건축이 되어 있어서 외국인이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매입한 외국인들이 자신의 소유권을 여러 가지 형태로 보호책을 강구하고 있다.





16.1. 아파트 분양청약 신청시 확인이 필요한 개발업체의 인허가

16.1.1. 설립 정관, 개정 장관 및 법무부 승인서

16.1.2. 세적 등록증

16.1.3. 부가가치세 과징 지정회사 증명서

16.1.4. 사업허가서

16.1.5. 아파트 소재 허가서

16.1.6. 아파트 건축허가서

16.1.7. 토지 등기 권리증

16.1.8. 1996년도 재무제표

16.1.9. 매매 약정서 건본

16.1.10. 매입자의 소유증명 등기권리에 관한 설명 요구

16.2. 통상 있는 문제점

16.2.1. 아무런 약정서도 없는 상태에서 청약신청 보증금과 1차 불입금 및 2차 불입금 및 부가가치세 10% 지급해야 하며,

16.2.2. 상기 항의 해당 금액을 지급 후에야 분양업체에서 지정한 공증인 사무소에 매매약정서에 서명을 할 수 있으며,

16.2.3. 아파트 완공 후 정부로부터 아파트 주거 허가서가 나온 후에야 매매증서 작성이 가능하며,

16.2.4. 매매증서 서명 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 발생하며, 이 권리를 토지청에 등록하나,

16.2.5. KITAS 혹은 KITAP 보유자는 자신의 명의로 등기가 불가능함으로 회사 명의 혹은 인도네시아 국민 명의로 등기를 해야 하며,

16.2.6. 이에 대한 안전 보호 장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16.3. 위임장 방식 분양.매입의 문제점

16.3.1. 아파트 분양.매매는 민사관계로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어, 계약 당사자끼리 계약 체결이 자유이며, 이에 대한 권리와 의무도 계약 당사자의 소관이다.

16.3.2. 등기상의 명의가 분양업체로 되어있으므로 분양업체에 대한 채권자가 하더라도 법적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압류.매매 등).

16.3.3. 명칭과 내용은 취소불능 위임장으로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위임자가 임의로 피위임

자의 동의없이 취소가 가능하다(취소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 나오면 나중에 책임만 지면 된다).

16.3.4. 위임자의 일방적인 취소로 인해서 실제 소유주가 피해를 당하였을 경우에 민사소송 제기 시 받은 손해를 법적으로 증명할 의무가 있다.

16.3.5. 민사소송 청구시 해결기간이 통상 2-3년 소요되며,

16.3.6. 승소할지라도 상대방이 지급능력이 없으



면 상대방에게 체형을 가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인도네시아 법 때문에 실효는 기대하기가 힘들며, 16.3.7. 더욱이 상대가 법인인 경우에 도산되면 피해 배상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아파트 명의를 분양업체 명의로 놔둔채 위임장 식으로 분양을 받는 것은 매입자 입장에서는 위험부담을 아주 높다고 할 수 있다.

16.4. 위험을 줄이는 매입 형태

16.4.1. 아파트를 외국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그만한 회사를 설립해서 회사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16.4.2. 신뢰할만한 인도네시아 국민(현지인 혹은 인도네시아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한인 동포)의 명의를 빌려 등기하고, 아파트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다.



# 드라마에서 배우는 BAHASA



허영순/OKTN (KBS WORLD)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고민되는것 중 하나가 미용실 선택의 문제가 아닐듯 싶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많은 한국 미용사 선생님들이 계시어서 좀더 세련된 헤어스타일 유지가 가능한데요.  
머리를 깎다 바르게 사용하려면 머리카락을 깎다. 자르다. 다듬다. 밀다(삭발하다) 라고 표현해야겠지요.

새 주말 드라마 참 좋은 시절이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Masa Indah”  
사투리때문에 주연배역을 못 말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동탁... 스님역을 맡기위해 머리카락을 삭발하러 미용실에 갑니다.

대머리, 삭발하다. 깎다(밀다) 각기 다른 단어로 표현됩니다.

**Gundul**(형용사) 대머리, 황폐한이라는 뜻의 형용사로 Menggunduli (머리카락을)삭발하다. 면도하듯 밀다의 어근으로 (탈모로 또는 삭발/면도를 통해 대머리가 된 경우)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 1 머리카락이 없는 경우  
( tidak berambut (tentang(tt) kepala))
- 2 탈모로 인해 털이 자리지 않거나 빠진 경우/동물  
( tidak ditumbuhi bulu atau bulu-bulunya telah rontok (tt binatang))
- 3 풀이 자라지 않는 경우/지역이나 땅  
(tidak ditumbuhi tanaman (tt daerah, tanah))
- 4 잎이 없는 경우/ 나무  
(tidak berdaun (tt pohon))

## Menggunduli (동사)

- 1 대머리가 되게 머리카락을 밀다.  
(mencukur rambut hingga gundul)
- 2 황폐해질 때까지 벌목하다.  
(menebangi pohon-pohon hingga habis)

- Kepalanya gundul setelah kembali dari wajib militer.  
의무 복역을 마친후 대머리가 되었다.
- Manusia dapat mengurangi bahaya banjir dengan tidak menggunduli hutan-hutan.  
홍수의 위험을 줄이려면 산림을 황폐화 시키지 말아야 한다.
- Setelah makan makanan yang beracun pantat anjing itu gundul.  
독이든 음식을 먹은 후 그 개의 엉덩이에는 털이 나지 않는다.

**Botak**(형용사)은 대머리 또는 머리가 벗겨진 상태를 나타내며 membotak의 어근이다. 주로 탈모, 머리카락이 벗겨져 대머리가 된 사람을 지칭 할때 사용된다.

- 1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의 머리  
(tidak berambut (tt kepala orang))
- 2 털이 없는 / 동물의 머리  
(tidak berbulu (tt kepala binatang))

Botak의 경우 Botak이라는 형용사에 접두, 접미사가 붙으면서 다음과 같이 뜻이 세분화 된다.

- Membotak 머리(카락이)가 벗겨진, (대머리가 되는 진행 중인 상태)
- Membotaki 탈모가 아닌 머리카락을 깎아서 (밀어서) 대머리가 된(인위적으로 머리카락을 깎거나 밀어서 대머리가 된 상태)
- Kebotakan 탈모로 인해 대머리가 된 상태(이미 대머리가 된 상태)
- Belakangan ini, banyak orang muda mengalami kebotakan karena tingkat stres dan polusi yang tinggi.  
근래들어 젊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상승과 공기오염으로 인한 탈모를 경험한다.(이미 대머리가 된 상태)
- Mereka membotaki kepala sebagai bentuk kepedulian terhadap penderita kanker.  
암 환자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한 행동이 일환으로 머리(카락)를 삭발했다(밀었다.) (인위적으로 머리카락을 밀어 대머리를 만든 상태)
- Kebotakan dini dapat disebabkan oleh faktor keturunan/genetika.  
이른 (이미 탈모로 인해 대머리가 된 상태)탈모현상은 유전적 영향으로 인한것이다.
- Kepalanya terlihat membotak kalau dilihat dari atas.  
위에서 내려다 보면 (현재) 탈모가 진행중인것이 보인다.





**재외동포재단**에서는 재외동포사회와 모국 발전에 기여할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국내 대학 학사과정 및 석·박사과정 수학을 희망하는 재외동포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지원하는 재외동포초청장학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내용 관련하여 우수한 재외동포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아 래 -

1. 선발대상

- 2014년도 9월 학기 또는 2015년도 3월 학기 국내대학 학사과정 및 석·박사과정 입학 예정자
- ※ 개별적으로 이미 입학하여 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

2. 선발인원

- 학사과정 : 30명 내외
- 석·박사과정 : 50명 내외

3. 추천 일정

- 접수기간 : 2014.03.10(월)~2014.04.16(수) (코리안넷 신청서 접수 기간)
  - 코리안넷에 신청서 접수 후 출력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공관 제출
  - 공관 제출일자 : 2014.04.11(금)
- 최종선발 및 합격자 통지 : 2014.5월 초 공관에서 개별통지 예정

4.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 붙임 과정별 선발요강 참조

5. 기타사항

- 지원자격, 지원내역 등 장학생 선발 관련 자세한 내용은 재단 웹사이트 (<http://www.korean.net>)와 당관 홈페이지를 참조

## 부동산 등기법 변경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으로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일부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 2.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등록번호의 구성체계)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영 별표 1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를 구성하는 각 번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여한다.	제2조(등록번호의 구성체계)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지역번호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시(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에 대한 등록번호에 따라 부여한다.	2. -----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1호----- <u>국토교통부장관</u> -----.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제4조(등록번호 부여신청의 확인) 영 제5조에 따라 등록번호 부여신청을 받은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을 말한다)·군수는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번호 부여신청의 확인)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에 따른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맞는지 여부	2. 「부동산등기법」 제49조-----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 화제의 도서를 소개합니다!!

## 건축가가 사는 집

나카무라 요시후미 저/디자인하우스



나카무라 요시후미가 일본 건축가들의 자택을 방문하고 써 내려간 건축 견학기. 『내 마음의 건축』과 『집을, 순례하다』에 이은 세 번째 주택 탐방기로, 이번 주택 순례기에서는 미국, 네덜란드, 대만 등 세계 각지에 있는 일본 건축가들의 자택을 살펴보았다. 찰스 임스의 주택을 연상시키는 ‘다나카 레지던스’ 부터 폐선 직전의 낡은 페리를 구입해 주택과 스튜디오로 개조한 ‘닐스의 페리보트 하우스’, 그리고 동물의 보금자리를 방불케 하는 ‘중심이 있는 집’ 까지, 총 스물네 채에 이르는 건축가의 집을 찾아 그 속살까지 살살이 살펴보았다.

## 구스타보 두다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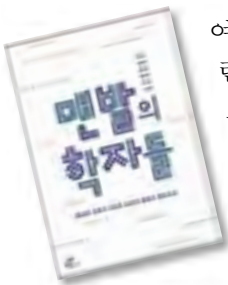
장혜영 저/미래를소유한사람들



2009년 9월, 미국 LA에서 세계 클래식 음악계를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발생한다.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미국 클래식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LA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 불과 28살의 청년이 ‘최연소’ 상임감독으로 취임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전 세계 유명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자리는 노련하고 경험이 풍부한 노장들의 전유물이었다. 그런 자리를 햇병아리에 불과한 청년이 차지하자 음악계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이 양분하고 있는 클래식 음악계에 홀연히 나타난 제3세계(베네수엘라) 출신의 음악가란 점과, 내로라하는 유명 음악학교를 다니지도 않았다는 것, 그가 받은 음악교육이라곤 오로지 국가가 운영하는 무료 교육이 전부라는 것도 ‘신화 창조’에 일조했다.

## 맨발의 학자들

전제성 등저/놀민



여기에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이런 고생을 사서 할까?” 라는 질문에 도 과감하게 현장으로 뛰어들어 학구열로 젊음을 불태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 이 책은 동남아시아라는 여전히 낯선 곳에서 뿌리를 내리며 살며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응하면서, 그곳의 가장 첨예한 문제들을 건드리며 연구하고 박사학위 논문을 쓴 동남아 전문가 6인의 생생한 체험담을 담아낸 결과물이다. 김형준, 홍석준, 채수홍, 이상국 등의 인류학자와 전제성, 황인원 등의 정치학자는 각각 인도네시아 이슬람 농촌 마을, 말레이시아 농촌 마을, 베트남 한인 기업과 베트남 노동자들, 태국 미얀마 국경 지역 난민촌, 인도네시아 노동조합, 말레이시아 정치 현장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고 부딪치면서 현지조사를 하고 박사학위를 쓰는 과정을 솔직하게 표현해내고 있다.

## 모험 본능을 깨워라

스킵 요웰 저/푸르메



잔스포츠의 공동 설립자인 스킵 요웰이 그의 인생, 사업, 모험 이야기를 전한다. 서부 개척시대 선구자들의 모험심 넘치는 DNA를 타고난 그는, 1967년 사촌 머레이 플레츠의 제안으로 머레이의 여자친구 잔과 함께 ‘잔스포츠’를 만들었다. 야외 활동을 즐기며 자아를 발견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된 잔스포츠는 대단한 사업계획이나 많은 자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경영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닐뿐더러 물건을 팔 상점조차 없었다. 이 책은 시골 촌구석 출신의 소년이 어떻게 모험중독자이자 훌륭한 산악가가 되었는지, 또 삼촌이 운영하던 정비소 위 창고에서 패밀리사업으로 시작한 잔스포츠가 어떻게 아웃도어 산업의 정상에 올랐는지를 스킵 요웰의 흥겹고도 영감 넘치는 인생 여정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유쾌하게 들여다본다.



## 제3인류 4

베르나르 베르베르 저/이세욱 역/  
열린책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신작. 『제3인류』의 제4권이자 제2부의 완결편. 『제3인류』는 한계 없는 상상력의 대가 베르베르가 신화와 철학, 대담한 과학 이론을 접목해 야심 차게 쓴 신(新) 창세기다. 베르베르는 인간의 손에 의해 새로운 인류가 창조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들의 사회는 어떤 모습이 될지, 인간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거대한 규모의 상상세계를 흥미롭게 펼쳐 보인다. 베르베르는 여전히 미성숙한 존재인 인간을 창조주, 불완전한 신의 위치에 놓음으로써 방황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노출하게 만든다. 그리고 인류가 만든 새로운 인류, 에마슈의 사회에 타락과 범죄, 종교와 제도, 자유의지의 문제가 발생하는 과정을 보여 주는데, 그것은 인간 사회와 문명사의 시뮬레이션이나 다름없다. 이런 장면들을 보노라면 독자는 야릇한 웃음을 짓게 된다.

## 양심을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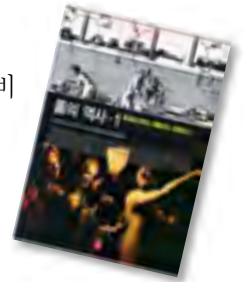
이얼 프레스 저/이경식 역 | 흐름출판



다소 무거워 보이는 주제와 달리, 접근 방식은 대단히 부드럽고 에세이처럼 편안하다. ‘가장 평범한 사람’이 ‘가장 보편적인 가치’를 실천했던 이야기들이다. 이 책의 한국 출간에 특별히 많은 관심을 보인 저자는 “정의와 상식에 목말라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전했다. 뉴욕에서 활동 중인 인권 탐사보도 전문기자 이얼 프레스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인 양심을 따르고, 신념을 지킨 사람들을 오랜 시간 추적하였다. 특별히 그는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용기 있는 선택에 관심을 가졌다.

## 몸의 역사 1

다니엘 아라스, 로이 포터, 조르주 비가렐로等著 | 길



몸의 역사는 우리가 직접 부딪치는 세계, 감각과 환경의 세계, 모든 물질 ‘상태’의 세계를 가장 먼저 복원해준다. 그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느끼고 그 느낌을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물질적인 조건, 거주 방식, 교환 방식, 물건을 만드는 방식과 함께 변하는 세계이다. 몸을 생각하고, 대하고, 가꾸는 방식은 문화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에 ‘몸의 역사’ - 몸을 보는 관점, 몸을 대하는 태도, 몸가짐이나 운동과 관련된 담론, 의학이나 수술, 종교적으로 받들거나 저주하는 몸-를 쓰고, 몸을 창문이나 입구로 삼아 과거로 들어가 인류문화를 복원하는 작업이 몸 자체를 연구대상으로 삼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 힐링

박범신 저 | 열림원



제목에서 느낄 수 있듯이 모두에게 위안과 휴식이 되는 글들을 담고 있다. 문장 마디마디 속에서 소리 없이 맹렬한 소통의 장이 펼쳐지고 있는가 하면 이해와 긍정, 회복의 이미지가 그려지기도 한다. 이 책은 작가가 눈산에서 머물며 때로는 벽에 그린 낙서처럼, 때로는 시 한 수 읊듯이 또 때로는 이야기하듯이, 대화하듯이 써내려간 짧은 글 모음이다. 3년여 동안의 소소한 일상이 묻어 있는 이 글들은 어느 한편 쓸쓸하게 다가오기도 했다가 삶에 대한 끝없는 열정을 실감하게끔 하기도 한다.



도서 관련 문의 : YES24 인도네시아 이준호  
021-2902-1714(직통105) / 0815-830-3543 /  
help@yes24.co.id / www.yes24.co.id

## 2014년 한인회 개인회비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납부명단 (접수순)

(2014년 4월 2일)

번호	성명	납입연도	금액	
			IDR	USD
1	이지현	2014	6,000,000	
2	김주철	2014	3,000,000	
3	이종후	2014	1,000,000	
4	백승래	2014		200
5	손용	2014	300,000	
6	임성용	2014	300,000	
7	이승민	2014	300,000	
8	김재민	2014	300,000	
9	신기엽	2014	300,000	
10	강희중	2014	300,000	
11	강덕재	2014	3,300,000	
12	김원모	2014	300,000	
13	권영동	2014	300,000	
14	김일태	2014	300,000	
15	이소왕	2014	300,000	
16	이완주	2014	300,000	
17	이효욱	2014	300,000	
18	정재호	2014	300,000	
19	최건호	2014	300,000	
20	최문중	2014	300,000	
21	홍석진	2014	300,000	
22	홍훈섭	2014	300,000	
23	김섭	2014	300,000	
24	김종주	2014	300,000	
25	오세윤	2014	300,000	
26	김현동	2014	300,000	
27	백승명	2014	300,000	
28	윤석환	2014	300,000	
29	이기열	2014	300,000	
30	이정호	2014	300,000	
31	최호영	2014	300,000	
32	황재규	2014	300,000	
33	한기환	2014	300,000	
34	배희윤	2014	300,000	
35	이봉규	2014	300,000	
36	이원만	2014	300,000	

번호	성명	납입연도	금액	
			IDR	USD
37	박정호	2014	300,000	
38	양영연	2014	300,000	
39	배영태	2014	300,000	
40	최철우	2014	300,000	
41	김영수	2014	300,000	
42	이일하	2014	300,000	
43	이수진	2014	300,000	
44	장방식	2014	300,000	
45	조규철	2014	300,000	
46	최양기	2014	300,000	
47	엄종한	2014	300,000	
48	no name	2014	300,000	
49	오세명	2014	300,000	
50	김세형	2014	300,000	
총 금액			Rp26,800,000	\$200

## “내가 자발적으로 내는 외비는 따뜻한 이웃사랑입니다”

### 개인회비는 가구당 매년 Rp. 30만 로

책정이 되어 있으며 납부되는 정회원 회비는 한인회의 모토인 나눔으로  
 축복받고 더불어 함께 사는 아름다운 한인사회를 위해  
 불우이웃(한인,인도네시아인)을 돕는데 전액 쓰여질 것 입니다.  
 매월 적립되는 금액과 사용내역은 한인뉴스와 한인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밝힐 것입니다.

한인회원 모두의 의무인 회비납부를 통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 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신기엽 배상

### <보내실 곳>

	우리은행 BANK WOORI INDONESIA	KEBI HANA BANK	
계좌번호	RP A/C NO: 100-913-000538	RP A/C NO: 220 200 5949	RP A/C NO: 001 00 11 002049
예금주	ASOSIASI KOREA	YAYASAN ASOSIASI KOREA	



## 〈수재의연금 모금 현황〉

### 수재의연금 기탁자

(2014.04.02 현재)

번호	기업 · 단체명	대표자	금액
			RP
1	KORINDO GROUP	승 은 호	100,000,000
2	KMK GROUP	송 창 근	100,000,000
3	재인니한국봉제협의회(KOGA)	배 도 운	50,000,000
4	PT. HANKOOK CERAMIC INDONESIA	차 상 만	50,000,000
5	PT. DAYUP INDONESIA	석 웅 치	30,000,000
6	PT. DOOSAN CIPTA BUSANA	배 도 운	20,000,000
7	PT. MITRA BUANA	신 동 수	20,000,000
8	PT. HANINDO EXPRESS UTAMA	신 기 업	10,000,000
9	PT. GAYA INDAH KHARISMA	김 영 옥	10,000,000
10	PT. STAR CAMTEX	김 주 철	10,000,000
11	PT. CIPTA ORION METAL	김 준 규	10,000,000
12	PT. BUSANA PRIMA GLOBAL	박 재 한	10,000,000
13	PT. KYUNGSEUNG TRADING INDONESIA	배 응 식	10,000,000
14	PT. ING INTERNATIONAL	엄 정 호	10,000,000
15	PT. SUNG BO JAYA	이 진 수	10,000,000
16	PT. VICTOR JAYA RAYA	이 호 덕	10,000,000
17	PT. BANK WOORI INDONESIA	최 상 학	10,000,000
18	PT. INWHA INDONESIA	황 의 상	10,000,000
19	PT. KIPCO CO.LTD	김 영 만	10,000,000
20	한인회 여성 회장	박 미 례	10,000,000
21	PAKUWON GROUP	이 윤 상	10,000,000
22	소망교회	김 종 성	10,000,000
23	기독교실업인자카르타지회	한 상 재	15,000,000
24	PT. SAMICK INDONESIA	권 희 정	10,000,000
25	재인도네시아모발협의회	김 영 울	10,000,000
26	족자카르타한인회	박 병 엽	10,000,000
27	동네사람들		5,000,000
28	NISSI GROUP	김 재 유	5,000,000
29	PT. INKO PRIMA UTAMA JAYA	장 주 현	1,000,000
30	PT. BIG STAR	최 광 수	10,000,000
31	PT. DONG JUNG INDONESIA	조 규 철	10,000,000
32	PT. ZIMMOAH MARINE TRANS	이 지 현	10,000,000
33	PT. ETRADING SECURITIES	김 희 년	10,000,000
34	PT. ZONE STAR INDONESIA	김 준 명	5,000,000
35	PT. DONGEN CHEMICAL	홍 종 서	31,000,000
36	PT. SAMSUNG PRINT & PACK INDONESIA	김 광 규	10,000,000
37	PT. UNICON INDONESIR	김 성 정	5,000,000
총 금액			Rp.667,000,000

## 2014년 한인회 임원찬조금 명단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납입연도	금 액
					USD
1	한인회 명예회장	승 은 호	PT. KORINDO GROUP	2014	19,973
2	한인회 수석부회장	배 도 운	PT. DOOSAN CIPTA BUSANA	2014	10,000
3	한인회 부회장	강 희 중	PT. SUNG TECHNOLOGY	2014	5,000
4	한인회 부회장	김 희 년	PT. E-TRADING	2014	5,000
5	한인회 부회장	김 영 옥	PT. GAYA INDAH KHARISMA	2014	5,000
6	한인회 부회장	김 주 철	PT. STAR CAMTEX	2014	5,000
7	한인회 부회장	김 준규	PT. CIPTA ORION METAL	2014	5,000
8	한인회 부회장	박 재 한	PT. BUSANA PRIMA GLOBAL	2014	5,000
9	한인회 부회장	엄 정 호	PT. ING INTERNATIONAL	2014	5,000
10	한인회 자문위원	강 덕 재	PT. LEMBU SWANA PERKASA	2014	1,000
11	한인회 자문위원	김 석 래	PT. INACON LUHUR PERTIWI	2014	1,000
12	한인회 자문위원	김 영 주	PT. DEWA CITRA SEJATI	2014	1,000
13	한인회 자문위원	송 재 선	PT. PUTRA HANKUK	2014	1,000
14	한인회 자문위원	양 영 연	PT. BOSUNG INDONESIA	2014	1,000
15	한인회 이사	김 영 만	PT. KIPCO UTAMA ENERGY	2014	1,000
16	한인회 이사	김 희 익	PT. EPS INDONESIA	2014	1,000
17	한인회 이사	신 만 기	PT. PARKLAND WORLD	2013	1,000
18	한인회 이사	오 세 명	PT. SUNG LIM CHEMICAL	2014	1,000
19	한인회 이사	유 주 완	PT. FEEL BUY	2014	1,000
20	한인회 이사	윤 석 환	PT. SUNG SHIN INDONESIA	2014	1,000
21	한인회 이사	이 소 왕	L S W	2013	1,000
22	한인회 이사	이 현 상	PT. ROYAL KORINDAH	2014	1,000
23	한인회 이사	임 성 용	PT. MIRINA NUSANTARA	2014	1,000
24	한인회 이사	정 철 주	PT. DONG IL	2014	1,000
25	한인회 이사	홍 기 호	PT. AURORA WORLD	2014	1,000
총 금액					\$80,973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2992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3030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 •긴급전화

경찰(범죄 및 도난신고)	110
구급차	118,119
전기고장 및 문의	123
전화고장 및 문의	147
화재	113
수도고장및문의	5798 6555/577 2010
열차시간 문의	121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땅그랑한인회	5532 5555
반동한인회	022 2021566
발리한인회	0361 723 070
브까시한인회(총무)	0811 847 556
보고르한인회	7782 8886
수라바야한인회	031 568 8690~1
수까부미한인회	0266 736 441
스마랑한인회	0298 522 296
메단한인회	0811 608 724
족자한인회	0274 376 741
바탐한인회	0778 392 01
보고르한인회	7782 886
찌까랑한인회	8990 9917
한국부인회	526 087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11708882
국악사랑단체	0811 90 2003
즈빠라한인회 (총무 조영성 0813 90323355)	0291 598593

##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벼룩시장	8983 1908
한울	452 565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844 4958~61
JIS	750 3640
NJIS	450 7660
BIS	745 166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JIMS	744 4864
헤리티지인터내셔널스쿨	08129712306

## •유치원

bambino (위자야)	720 3356
(빠뜨라 꾸닝안)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50 0739
(끌라빠가당)	471 8047
(땅그랑)	558 7227
샌즈몬테소리스쿨	720 6629

## •은행

수출입은행	525 7261
외환은행	574 1030
우리은행	515 1919
하나은행	522 0222~3

##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예사랑침례교회	4176 5140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까랑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20 0240
한마음교회	739 5035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연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ijay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ijay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항공권·호텔·관광·비자**

로템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Tel: (021) 4587 8833 Fax: (021) 293 64168  
HP: 0812 967 8131  
E: rodemtours@naver.com  
rodem\_tours@cbn.net.id

**챔피온**



**환전**  
송금업무  
높은환율

Tel: (021) 4585 1158  
HP: 0815 114 14 119  
주소: Ruko Inkopal Block C No.75  
Kelapa Gading

佳肴 최고의 제도와 지명화된 서비스와  
그 이쁨에 남아 모시겠습니다



**Gahyo**

(021)9127-2262  
308D Jl. Jend. Sudirman Kav. 52-53 Lot. 6 Jkt  
(021)4587-6626  
Soort Mall Kelapa Gading Blok A 26-27 Jkt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중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가구

쥘리언 퍼니처	766 0364
아이니갤러리	581 4690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부아메라	0816 1854 58
한국건강원	5579 6411
황소건강원	5576 7628
진영삼봉나와	8234 565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름황성주생식	5296 1522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골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	----------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건설 설비 전기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꽃집	0816 733 810

●기타

바틱하우스	0816 770 143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11 85 3156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 119 3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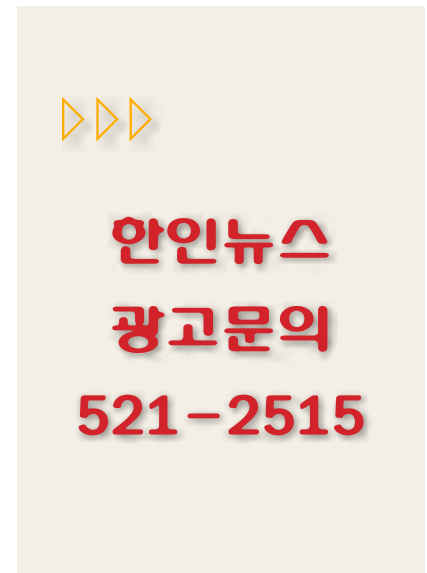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미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퀸덤	7279 2067~8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자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2728 6969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병원	
관준한의원	722 7745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신농씨 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비디오	
비디오 서울	723 2088
한양 비디오	450 4364
K-마트 비디오	688 22040
●사진관	
ELGA 포토스튜디오	521 0862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골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무궁화(다르마왕사)	723 3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골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안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725 2122
위자야마트	726 9049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야성	725 7373
가효(Sudirman)	9127 2262
가효(Kelapa Gading)	4587 6626
강강수월래	380 5217
강나루(땅그랑)	5576 8222
강촌(땅그랑)	5579 3681
경복궁(찌까랑)	8990 8822
고려가든(스마랑)	(024) 746 4090
고목(찌까랑)	897 3463

고인돌	452 5597
고주몽	7279 6709
국일관	822 8974
권명희복집	720 7464
금수강산(찌까랑)	8983 3282
기소야	574 7581
뉴코리아타워	3193 0311
뉴서울(땅그랑)	546 0845
다리아분식	722 0276
대감집	726 4356
돌아온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또래오래치킨(버까시)	8243 4848
레드토마토(EX몰) (뽕독인다)	315 1033 7592 0654
마포	7279 2479
만나	821 5279
만리장성(땅그랑)	552 1210
명가면옥(땅그랑)	552 2745
모나리자(찌까랑)	8990 9570
물레방아	8990 6956
목우촌	450 4155
미르(맨하튼호텔)	5296 1201
미추홀(선레이크호텔)	6583 1472
버까시서울(버까시)	8895 7604
부산횃집(꿀라빠가딩)	4585 1156
산들(땅그랑)	5579 5821
산타코리아	722 9921
싼티카 클래식(버까시)	8459 9282
상록수	8983 6047
서동(찌부부르)	8459 9858
서라벌	572 3475
서울가든	(0361)768 323
서울일식(땅그랑)	546 0845
서울팔레스	(024) 447 414
소양(찌까랑)	897 2231
송가네 삼계탕(꿀라빠가딩)	4585 4422
송도(리뽀찌까랑)	8990 1474
수라청(세노파티)	527 8721
수라청(꿀라빠가딩)	4585 1115
스카이 코리아(공항)	550 9158
시티서울	5289 7506
신도시	897 3615
아랑 22	522 7201
아랑갈비	8983 6047
아랑/스시 코리아	453 1679

아리랑(리뽀찌까랑)	8990 1662
아리아분식	722 0276
아랑갈비(찌까랑)	8983 6047
아리랑(찌까랑)	8990 9917
압구정	2905 2925
이스타나코리아	314 4501
어울림	551 4853
아마(땅그랑)	547 2722
어울(땅그랑)	551 4853
본가	739 6229
우리들(땅그랑)	552 4047
울엄마	920 7244
원조식당(수가부미)	4585 1156
원치킨호프(땅그랑)	5577 6770
2002 레스토랑(땅그랑)	5940 4189
장수대	726 4570
장터(꿀라빠가딩)	4585 4302
종가집	8990 6956
주막레스토랑(찌까랑)	8990 0514
카사블랑카	8241 4949
코레아나	390 4568
코리아안하우스(찌부부르)	844 4786
코리아안하우스(반등) (022)	203 1626
코리아우스(횃집)	844 5877
타임(까라와찌)	5577 6324
태극관	822 7011
토담	521 0230
토박	725 1135
팔레스	5296 2001
천지루(찌까랑)	8990 1662
청기왁	726 1924
청마루(꿀라빠가딩)	452 5597
청해수산	739 7032
초가(가라와찌)	552 6043
춘하추동	5940 2846
팡팡치킨	720 7275
하나레스토랑	4482 0081
하나마트 식당	8459 0064
하나비(리뽀찌까랑)	8990 3334
하나정(땅그랑)	5577 6457
하림각	551 8511
한강(Wolter Monginsidi)	7278 7802
한국관	720 7322
한민족	725 2688
한성관(꿀라빠가딩)	453 3033
한솔	5290 3417





한양가든	521 2522
한양가든(골라빠가딩)	450 2071
한우리(찌부부르)	8459 2871
할매손칼국수(골라빠가딩)	4585 3398
함지박	739 6958
향수	645 2378
해물촌	451 3761
해운대(땅그랑)	5577 8527
황소가든	8240 9670
황소가든 (0264)313	011
Ah Yat 레스토랑	5705 333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BBQ(골라빠가딩)	4584 7444
Esse MM2100	8998 1564
Lobster & King Crab	515 5060
<b>•신문</b>	
동아일보	720 6802
데일리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나프레스	4586 9199
일요신문	452 5655
타임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일보	5290 0117
<b>•안경원</b>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시티안경원	726 5009

<b>•여행사</b>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문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트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4 0422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빔)	0778 462 500
사랑투어	3192 4449
<b>•인니어통역/번역</b>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b>•인터넷</b>	
Net2Cyber	576 3490
S-Net	7080 7886
넥스텔링크	525 3187
<b>•인테리어</b>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7590 676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719 0247
아네카 트랜스	520 4181
트랜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자동차 정비소**

뱅크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증권/보험**

삼성화재	520 5511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6242
키움증권	526 1326
E - TRADING	574 1442
LIG 손해보험	391 3101

**•컨설팅**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쁘찌까랑)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퓨릭컨설팅	5596 3213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택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Reading Revolution	722 0833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 하숙집

고향집 하숙	83701492/081511597510
레저게스트하우스(땅그랑)	0811143437
썬터하숙	726 8775
일박이일하숙집	424 0953
교민하숙	0816 163 5558
미니호텔 뽀독인다	0821 2592 7000
갈릴리게스트하우스	522 4666
자카르타게스트하우스	724 6347
세명하숙(BL. M)	0856 9226 9933
Full House	0818 901 609

● 학원/교육업

대교인도네시아	5292 0911
다니엘아카데미	22 0686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5 1150 6664
박학천논술	4586 7844
뽀독인다아카데미	7590 5773
에세드라아트스쿨(리뽀까라와찌)	546 4531
예원	720 8783
인재서당	739 7153
종로학원	7883-5202
토마토미술	723 3699
	0817 9876 950
피카소어린이미술학원	3582 0077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한인예총

(회장 김문환)	0811 901983
미술협회(이은수)	0821 1414 2244

음악협회(김순재)	0856 1376677
어린이합창단(안영수)	0811 900 5639
라뮤즈합창단(유지영)	0813 98689802
서예협회(제종경)	0811 830477
월화차문화원(이선주)	0821 11794242
색소폰동우회(배종문)	0816 881423
문인협회(사공경)	0816 1909976
한바패(박형동)	0811 149 586
루시플라워(최정순)	0811 834 026
사진협회(민영기)	0811 177503
국악사랑(장방식)	0811 902003
헤리티지(이수진)	0816 1300210
색동회(강희중)	0816 798221

● 항공

대한항공(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시내)	572 1381~3
(공항지점)	5591 3229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몰리아	574 7777
상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उन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 51158
환전	712 8556

발 리 (지역번호 0361)

● 한인단체

재발리한인회	081-2379-39452
--------	----------------

●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	---------

●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	---------

● 슈퍼마켓

한국슈퍼마켓	281 929
--------	---------

●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INDA TOUR	286 90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860 4977
MANGOCAKE	745 4229
FIN DONGHWA TOUR	847 1966
DREMLAND TOUR	745 1961
DARMA BALI TOUR	848 0030
KOURUS TOUR	744 7200
M. TOUR MAIL	725 800
NUSA TOUR	285 122
I TOUR	261 105
MATAHARI KOREN TOUR	703 479
MARIN TOUR	224 010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TOUR	288 999
U2 Bali Holiday TOUR	710 731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 식당

그릴하우스	(0361) 710 374
꼬끼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IMPANG SIUR)	889 0870
대장금(SANUR)	918 1888
라리스	727 405
부가	805 1212
서울가든(부두굴)	(0362) 342 9220
한일관	727 250
인터내셔널라운지	759 368

## 생활정보

###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MAN&WOMAN VILLA	847 6521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VILLA NAMASTE	755 755
AISIS VILLA	862 8777

###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761 313
AVENUE	762 327
AISIS (NUSADUA)	770 256
AISIS (SANUR)	287 257
COLAGEN BUTY SHOP	885 1770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POLO SHOP(AIRPORT)	759 368
BALI TEGEHE AGUNG	298 643
CLEAN & GREEN	289 070
SUN JEWELLERY	761 537
SINAR MUTIARA BALI	462 061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 반동 (지역번호 022)

###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동렌트카	0858-1111-4000
반동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동컴닥터	0821-2222-6000

# 창립 20주년 행사

고객님의 사랑과 성원으로

창립 20주년 감사 특별할인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20여년간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 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 진주가 되겠습니다.






-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90% 환매보장 ◆ 금 매입·매각 가능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셋트(다이아, 진주)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021-7278-8327 HP.0888-110-2022

**본 점(수출/무역)**  
HP. 0816-873-176  
HP. 0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 KORINDO Plants the Green

KORINDO  
KORINDO GROUP

인류의 지속가능성, 녹색경영에서 해법을 찾다!

코린도의 주력사업인 천연림경영, 조림, 팜오일, 목가공사업 등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친환경사업을 통해  
지구와 인류를 위한 지속가능의 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 Green Tomorrow

파푸아 오일팜 농장  
Asiki, Papua Indonesia



# 30년의 선물

## 이 검은 돌이 주는 놀라운 혜택을 아십니까

수 천 만년 땅 속에 묻혀있던 이 검은 암석들이  
**KIDECO**의 기술로 이 땅으로 나오면  
비로소 그때, 우리가 사는 도시 구석구석으로  
따스한 빛과 열기가 되어 다닙니다.

참으로 긴 세월, 지난 30년-  
자원개발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두 번 사랑했. **KIDECO**  
우리의 열정과 투심이 당신의 삶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The Most Reliable Coal Supplier**  
**PT. KIDECO JAYA AGUNG**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삶 속에  
KIDECO가 함께합니다.

**KIDECO는**

동부,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량규모 세계 5위권의  
유연한을 타사로 경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우량 글로벌 자원개발 전문기업  **PT. KIDECO JAYA AGUNG**

